

■ 2016년 전문자료집 ■

부 모 교 육



남동경애인공심복기관

■ 2016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기능향상1팀

- 16-01 척추측만증 완화 운동 방법 5
- 16-02 손의 기능과 가정에서의 운동방법 13

2. 기능향상2팀

- 16-03 인지발달 놀이 49
- 16-04 수용/표현 언어발달 단계 53
- 16-05 구강 안면 근육 마사지 프로그램 64
- 16-06 동기유발과 교육환경의 조절 69
- 16-07 마음을 여는 대화와 놀이방법 74

3. 가족문화지원팀

- 16-08 장애인 건강 및 재활정보 83
- 16-09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자기옹호 이해하기 96

4. 직업지원팀

- 16-10 장애인 학대신고 103
- 16-11 마그마 힐링 111

5. 열린일터

- 16-12 2016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118
- 16-13 발달장애인 신탁의 이해와 활용 135

6.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16-14 2016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141

척추측만증 완화 운동 방법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16년06월07일 ~ 2016년07월 19일
장 소	1:1개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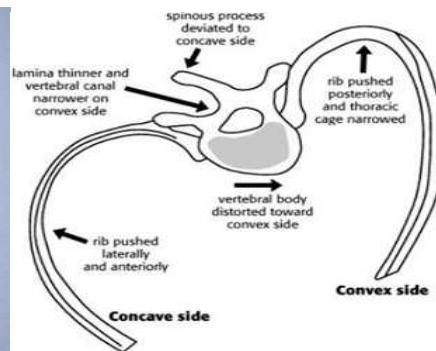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척추측만증 완화 운동 방법

1.척추측만증의 정의

척추측만증이란 관상면(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수직 방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른 단면)에서 척추를 관찰했을 때 척추가 어느 한 방향으로 휘어 한쪽은 볼록하게 튀어 나옴과 반대쪽은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의 기형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에 따라 C형과 S형이 있다. 이때 추체(척추뼈의 몸통)는 보통 볼록을 향하고 극돌기는 오목한 쪽으로 향하여 회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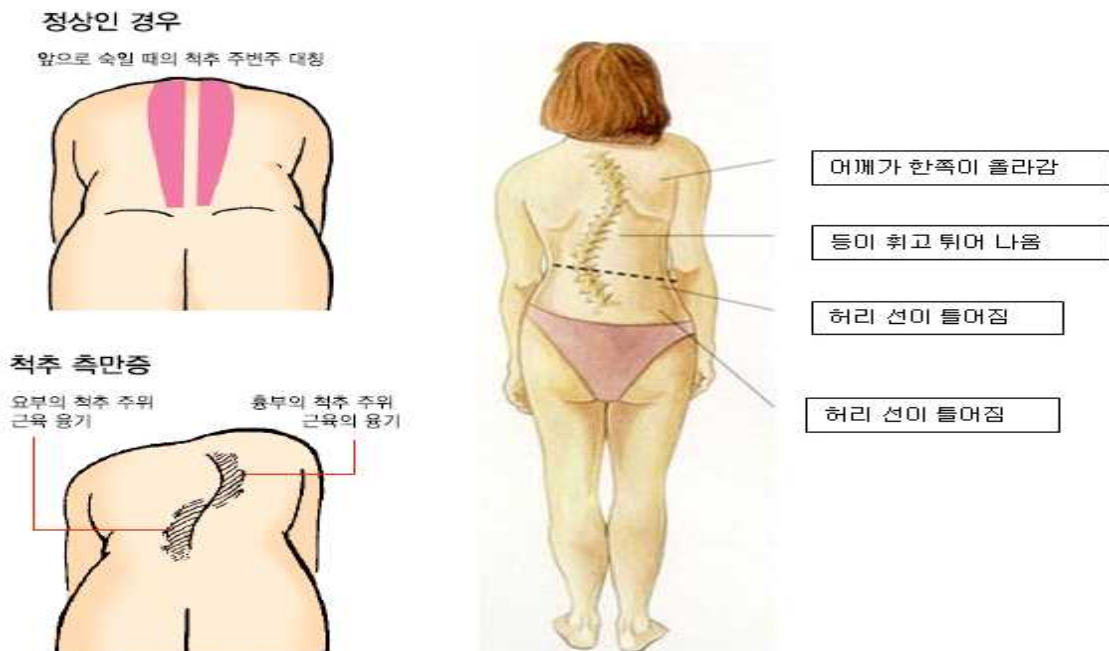
또한 시상면(얼굴을 측면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수직 방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른 단면)에서도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소실되는 3차원적인 기형 상태로 외관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주위의 장기를 전위시키거나 압박하여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측만증에서 생기는 만곡은 크게 경직된 일차만곡(primary curve)과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일차만곡의 위와 아래에 생기는 이차만곡(secondary curv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만곡은 비가역적인 만곡으로 만곡의 추체의 회전, 설상변화(wedge shape, 췌기모양) 등의 비대칭적인 변화를 보인다. 반면에 이차만곡은 일반적으로 일차만곡보다 작고 유연성이 있어 교정이 잘 되며,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구조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으나 그 진행이 일차만곡보다 훨씬 느리다.



일차만곡에서 일어나는 추체의 회전은 추체가 만곡의 볼록한 쪽으로 극돌기가 만곡의 오목한 쪽으로 향하게 일어나서 척추관(spinal canal, 척추뼈 구멍이 이어져

서 이론 관)이 왜곡(distortion)된다. 또한 흉부만곡의 경우 등쪽(back)의 늑골 돌출고가 생기게 되며, 흉곽의 기형이 심해지면 심폐 기능의 부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차만곡의 각도가 55도 이하인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90~100도에서는 운동 중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폐 기능 특히 폐활량(vital capacity)의 감소가 일어나며, 100도 이상의 흉부 만곡의 경우 폐활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폐성심(cor pulmonale, 폐순환계의 저항이 커져서 오른심실에 부담이 늘어난 상태)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 보다 높다.



2. 척추측만증의 분류

1) 비구조성 측만증(nonstructural scoliosis) 또는 기능적 척추측만증(functional scoliosis)

척추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외부의 원인으로 증세가 발생하여 2차적인 증세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의자에 앉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경우나 책가방을 한 쪽으로만 들고 다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구조성 측만증의 치료는 근력강화 운동과 신장운동으로 구성되는데 볼록에 대해서는 보통 근력증강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오목에 대해서는 신장운동을 처방한다. 아울러 비구조성 측만증에서는 환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교육해야한다. 또한 환자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세의 교정이 가능하다.

2)구조적 측만증(structural scoliosis)

①특발성 측만증

전체 측만증의 약 85%로 가장 흔하며, 그중에서도 청소년과 여성에게 호발한다. 유아기형(0~2세),연소기형(3~10세),청소년기형(10세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유아기형은 성장과정에서 소멸되기도 하며 남자 아이의 좌측 흉부에서 호발한다. 연소기형은 보통 여자가 평균 4배가량 많이 나타난다. 청소년기형은 10세부터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 사이에 나타나며 우측 흉부 만곡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②선천성 측만증

척추의 선천적인 발육이상, 즉 간엽기에 정상적인 연골화(chondrification)와 골화(ossification,뼈가 성장하는 과정)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며 다른 측만증과는 달리 신체의 다른 부위의 선천성 이상이 자주 동반된다. 비뇨기계 이상이 20%정도, 15~20%에서 심장이상이 나타나며, 10%내외에서 척수공동증(syringomyelia,척수 내부에 뇌척수액 또는 세포외액과 비슷한 양상의 액체로 이루어진 공간이 형성되어 점차 확장함으로써 척수 신경을 손상시키는 질환), 척추이분증(diastematomyelia,신경관의 양 끝이 가운데서 적절히 붙지 못 하여 생기는 중심 봉합선 봉합 장애로 생긴 척수 장애로 기형)같은 척추관내 이상이 동반할 수 있다. 특발성에 비해 유연성이 감소되어 있으며 기형의 각도가 성장기 동안 계속 진행된다.

③신경근육성 측만증

신경성의 원인으로는 척수 손상, 진행성 신경질환, 소아마비, 뇌성마비 등이 있고, 근육성의 원인으로는 관절만곡증(arthrogryposis),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등이 있다. 이러한 신경근육성 질환에 이차적으로 척추측만증이 발생한다. 여러 종류의 감각이상, 편측 혹은 양측의 운동마비를 가지며, 이로 인해 사지 및 척추의 기형을 가진다. 진행이 빠르며 심폐기능 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④신경섬유종 측만증

유전적 성향을 띄며 조직결함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특징적인 것은 다발성의 작은 신경섬유종과 밀크커피 색(cafe-au-lait)반점이 있으며, 안구의 홍채에는 lisch 결절이 나타난다. 신경섬유종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골 병변 중 하나로 20~25%에서 나타나며, 전체 측만증의 약 1%를 차지한다. 만곡의 형태는 다양하나, 전형적인 만곡은 5~8개의 추체를 포함하고 짧고 각도가 큰 우측 흉부만곡의 형태로 후만을 동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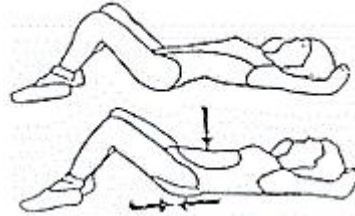
3.척추측만증 운동 방법

전신뻗기



양 손은 머리위로 뻗으면서 동시에 발은 아랫방향으로 하여 뻗는다.

허리로지면누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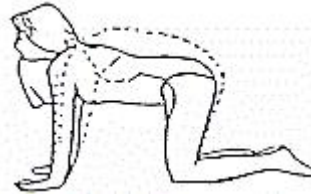
복부에 힘을 주어 등으로 지면을 누른다.

옆구리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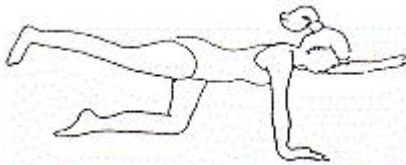
양반자세로 앉아 왼손을 머리위로 넘기고, 오른손은 몸통쪽으로 하여 왼쪽으로 넘긴다.

고양이말등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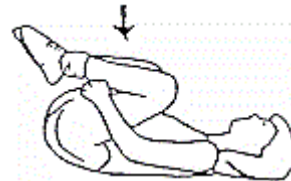
복근에 힘을 주어 허리를 위아래로 교차하여 불록하게 유지한다.

팔과다리의교차들기



양손과 무릎으로 지탱하고 팔과 다리를 지면으로 20~25cm까지 교차로 동시에 들어올린다.

무릎가슴닿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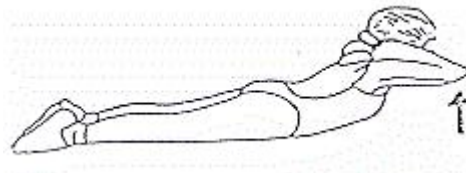
양 다리를 접어 몸통쪽으로 당긴다.

앞으로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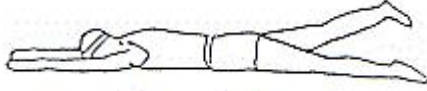
양다리를 앞으로 뻗고 최대한 앞으로 구부린다.

엎드려상체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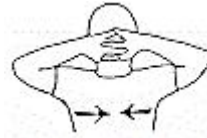
양손은 뒤로 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킨다.

옆드려 발들어올리기



옆으린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어 유지한다.

손깍지끼고당기



양손을 머리뒤로 깍지를 끼고 견갑을 모은다.

윗몸일으켜정지하기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여 윗몸일으켜 정지한다.

아깨와허리늘리기



양손을 벽에 대고 오른발은 뒤, 옆으로 늘린다

허리비틀기



왼다리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시선은 왼쪽을 본다.

비켜윗몸정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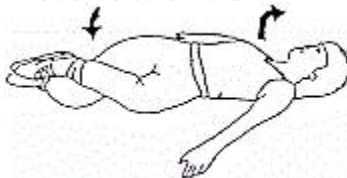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반대편 무릎에 손끝이 닿도록 하여 정지한다.

양팔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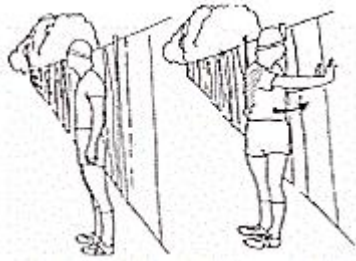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아래로 당기기

척추비틀기



무릎을 90도로 세워 오른발은 왼발위로 올려당기고 시선은 반대를 향한다.

허리돌리기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리고 벽위로 서서 허리를 돌려 양손이 벽에 닿게 한다.

옆구리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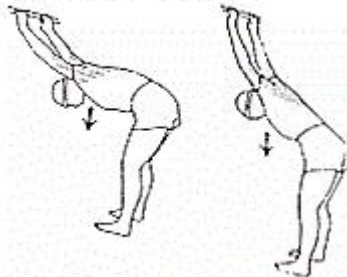
벽에 한 발 옆으로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옆구리를 늘린다.

한다리 접고 앞으로 굽히기



한쪽다리는 접고 편 다리쪽으로 최대한 구부린다.

아깨건갑운동



양손은 벽을 잡고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구부린다.

4. 결론

척추는 사람의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 하도록 하는 뼈를 이야기한다. 척추 안에는 뇌에서 나온 신경다발로 척수가 존재 하며, 이는 중추신경계인 뇌와 말초신경계인 말초기관들을 잇는 역할을 한다. 척수 는 매우 중요한 신경통로로, 손상 시 여러 가지 종류의 마비가 가능하여 강력한 뼈인 척추로 보호되고 있다. 척추는 시상면에서 바라볼 때 일자의 형태가 아니라 굽어져 있으며 이를 척추의 만곡이라고 한다. 경추의 만곡은 앞으로 휘어진 전만(lordosis)을 이루며 만곡이 가장 작다. 흉추의 만곡은 뒤로 휘어진 후만(kyphosis)을 이룬다. 요추의 만곡은 전만을 이루고 골반만곡은 요천추 관절에서부터 미추 끝까지이고 후만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소실된다면 외관상 의 문제뿐만 아니라,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주위의 장기를 전위시키거나 압박하여 기능장애를 초래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직립자세로 생활하는 인간에게는 중력을 적당히 분산시켜 주는 자세로 일상생활 을 유지함으로써 척추 문제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척추측만증을 예방하려면 바 른 자세 생활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척추의 만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할수록 추체를 따라 가해지는 중력이 균등해진다. 또한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신

체의 중심 축인 척추의 만곡을 올바르게 정렬하고 몸통의 균형을 유지해야한다.

척추측만증을 완화 하려면 볼록면에 대해서는 근육 강화 운동을, 오목면에 대해서는 근육 신장 운동을 통해 만곡의 최대 직선화를 유도해야한다.

중증의 뇌성마비 아동들은 정상적 움직임이 힘들기 때문에 척추측만증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세 변화를 경험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 스스로 중력을 이길 정도의 근력이 없다면 중력을 제거한 자세에서 아동이 움직임을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경험하게 해주고 다양한 자세 변화를 통하여 오목면 근육의 신장과 볼록면의 근육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척추측만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동을 도와주는 것을 권유한다.

참고문헌

1. 민경옥, 김순희, 박래준(1997). 질환별 물리치료학(I). 대학서림.
2. 대한물리치료학회(1998). 정형물리치료진단학. 현문사.
3. 박윤기 외. 근골격계 질환별 물리치료. 현문사. 2003
4. 김경 외(2004). 다수근골격계의 기능해부 및 운동학. 정담미디어.

손의 기능과 가정에서의 운동방법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16년 10월 18일~2016년 11월 04일
담당자	작업치료사 임주성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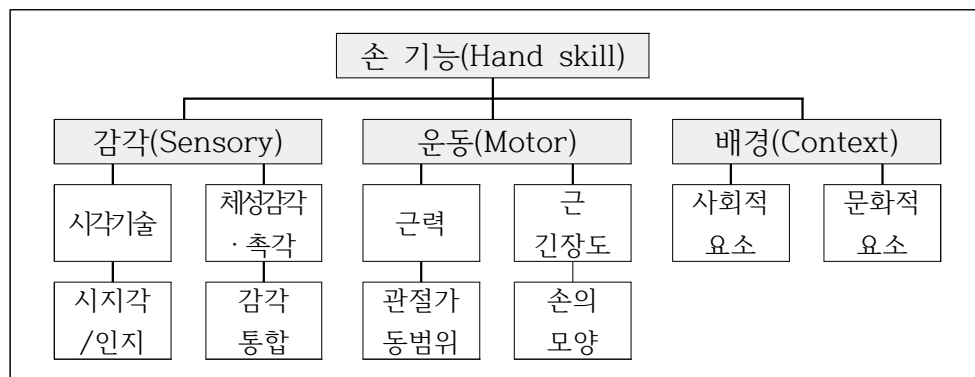
손의 기능과 운동방법

1. 손의 중요성

우리는 삶을 살면서 타인이나 외부 환경과 같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외부 세계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외부환경을 수용할 감각기관과 표현할 매체가 필요하다. 신체의 여러 구성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기관으로는 팔과 다리를 들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손은 촉각과 도구적인 기능으로 외부환경을 수용하고 주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우리 몸에서 손이 없다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우며 일상생활 대부분에 지장을 보이게 된다.

2. 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손의 기능적 사용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준다. 기능적 사용은 적절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환경을 인식할 감각요소와 목적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요소, 그리고 적절한 사용에 관한 배경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감각 요소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각자극에 의존하게 된다. 손을 사용할 때에는 시각과 더불어 손의 촉각 및 체성감각의 내적감각을 통해 움직임을 인식하게 된다.

- 시각기술(Visual Skill) : 시각 추적·고정·정렬 등의 기술이 있으며, 시각을 통한 외부 환경의 공간적 구조를 이해하며 운동과 환경 사이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획득한다.
- 체성감각·촉각(Proprioception·Tactile) : 목적을 위한 움직임의 시작과 환경 내에서의 움직임, 유지를 위해 적절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시지각·인지(Visuo-perception·Cognition) : 시각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하는 기능으로 물체의 특성·움직임의 거리·속도 등에 대해 취합된 모든 정보를 해석하여 움직임 조절에 사용한다.
- 감각통합(Sensory Integration) : 수용한 자극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환경에서 신체의 바른 위상을 파악하고, 움직임을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운동 요소

기능적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서, 운동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완전한 운동 요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상적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기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 근력(Strength) : 손이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잡고 조직하는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 근 긴장도(Muscle Tone) : 움직임을 위한 팔과 손의 적절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움직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게 한다.
- 관절가동범위(ROM) : 관절에서의 움직임 확보를 나타내며, 모든 움직임에서 최대 ROM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제한된 ROM은 보상 움직임을 나타내어 활동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 손의 모양 : 정상적이지 않은 손의 모양은 기능적이고 일반적인 사용에 어려움을 일으키며, 특히 엄지의 이상은 조작능력 저하에 큰 영향을 준다.

3) 배경적 요소

감각·신체적 기능을 갖추어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성이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방법으로서의 사용이 사회적 배경 안에서의 기능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

- 사회적 요소(Social Factor) : 성별·기대역할·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의미하며 복잡한 조작이나 도구 사용에 더 영향을 미친다.
- 문화적 요소(Culture Factor) : 물체의 조작 발달에 중요하며 같은 도구가 모든 환경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3. 손의 구조적 구성과 움직임 분류

손을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의 근간이 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구조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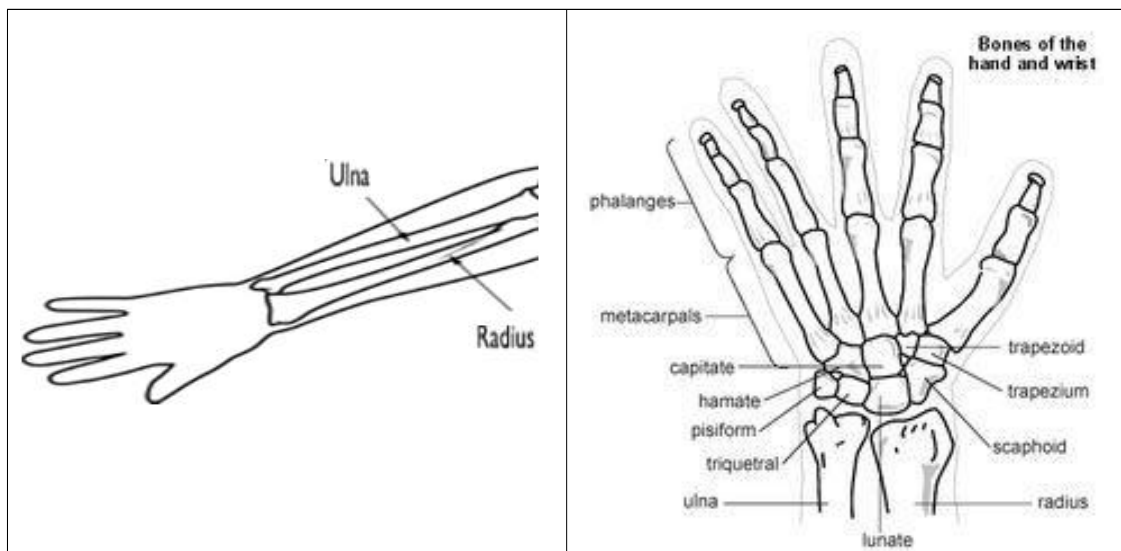
손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상지(어깨/팔/전완/손목/손)에서 전완과 손목, 손이 손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외의 구조에서는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된다. 손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대개 전완에 그 위치를 두고 있으며 인대가 뼈를 따라 주행하여 손가락 끝에 붙는다. 여러 가지 인대가 손가락에 붙고 도르래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 손가락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된다.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은 엄지와 새끼손가락, 손바닥뼈를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 전완(Forearm) : 엄지쪽의 Radius와 새끼손가락 쪽의 Ulna,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목의 움직임으로 착각하기 쉬운 옆침(Pronation)과 뒤침(Supination) 2가지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다. 중립자세에서 각각 움직임 방향으로 90°씩, 총 180°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옆침과 뒤침 같은 회전 움직임은 새끼손가락 쪽을 축으로 하여 한 개의 뼈(Radius)가 다른 뼈(Ulna) 위로 올라타는 움직임과 가운데 손가락을 축으로 하여 두 뼈가 서로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 손목(Wrist) : 작은 뼈 8개가 웅기종기 모여 서로 맞닿아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뼈들이 서로 맞닿아 있어 상호간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손목에서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굽힘(Flexion)과 펴름(Extension)이 있으며, 망치질할 때와 같은 양측 편위(Deviation)로 4가지 움직임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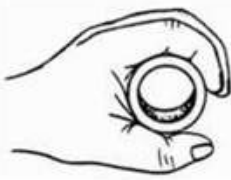
- 손&손가락(Hand&Finger) : 손바닥을 이루는 5개의 뼈와 손가락 마디마다 1개씩 총 19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평면구조가 아니라 3개의 아치(Arch) 형태를 이루고 있어 물건을 조작하는데 더욱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손바닥뼈 중 엄지손가락과 연결되는 손바닥뼈는 다른 뼈들과는 다른 모습의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엄지의 맞섬(Opposition)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엄지의 특이성으로 인해 조작활동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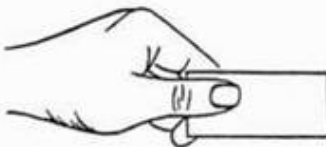
2) 움직임의 분류

손은 근골격계적인 단순 움직임의 복합형태로 나타나 기능적인 움직임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움직임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잡기(Grasp), 집기(Pinch), 손내조작(In-hand manipul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 잡기(Grasp) : 손가락의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닌 손 전체를 통해 물건을 잡는 것을 의미하며 크고 강하게 잡는 것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집기나 손내조작보다 발달이 빠르게 나타난다. Power · Hook · Disc · Spherical · Cylindrical grasp의 종류가 있으며, 잡기보다 정교한 움직임으로 손목과 손가락 움직임을 포함하는 Precision grasp이 있다.

		
Power grasp	Hook grasp	Disc grasp
		
Spherical grasp	Cylindrical grasp	

- 집기(Pinch) :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들의 맞섬 동작(Opposition)을 이용하며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사용한다. Three-jaw chunk · Lateral · Pad to pad · Tip pinch 등이 있다.

		
Three-jaw chunk	Lateral	Tip pinch

- 손내조작(In-hand manipulation) : 작은 물건을 다루기 위해서 손가락과 손을 사용하여 손 안에서 물체의 위치·방향 등을 조작한다. 일상생활에서 도구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Finger to Palm translation · Palm to Finger translation · Shift · Simple rotation · Complex rotation이 있다.

finger-to-palm translation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동전을 잡고, 손의 바닥으로 움직이는 것. 지폐문치를 세는 동작
palm-to-finger translation	finger-to-palm translation의 반대.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기 전에 동전을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것
shift	손가락 면으로 물체를 직선으로 움직일 때, 예를 들면 단추 채우기, 지퍼 채우기, 종이 찢기 등
simple rotation	물체를 손가락 면을 이용하여 90°이하로 turning 또는 rolling하는 것. 병뚜껑 돌려 열기
complex rotation	물체를 180도에서 360도로 한 번에 또는 반복해서 돌리는 것. 모든 skill은 손바닥의 arch를 조절하는 능력을 획득해야한다

4. 가정에서의 운동방법

손의 움직임이 원활하고 고기능적이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연습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들은 이러한 과정을 놀이로써 즐기며 반복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손 기술의 발전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자발적인 움직임이 어렵거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인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놀이만으로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놀이와 연습을 통해 발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두지시에서부터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정에서 진행하기 유리한 과제수행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호자가 제공할 수 있는 운동방법

활동명	수동 운동 방법
준비물	-
활동내용	- 엷드린 자세로 하여 아동이 팔을 펴고 지탱하도록 한다. - 아동의 팔을 잡고 조금씩 천천히 관절 운동을 한다. - 천천히 아동의 근육을 풀어준다. - 아동의 팔을 신체의 중앙에 모을 수 있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저항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천천히 움직이도록 한다. 통증이 느껴지면 무조건 중지한다. 세게 잡지 않고 살짝 잡는다.

활동명	능동 강화 운동
준비물	-
활동내용	1. 양쪽 어깨를 바깥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린다. 2. 양 팔을 달리기 하듯 번갈아 앞뒤로 흔든다. 3. 팔을 앞으로 펴고 최대한 상태를 유지한다. 4.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양팔을 몸에 붙이고, 바깥 방향으로 돌린다.
난이도 조절	반복하는 횟수를 늘린다. 지속하는 시간을 늘린다.

공을 사용한 운동방법

활동명	큰 공 안기/굴리기
준비물	아동이 안을 수 있는 크기의 무게감 있는 큰 공
활동내용	아동이 큰 공을 앉은 상태로 안는다. 보호자가 뺏으려할 때, 안고서 버틸 수 있다. 큰 공을 손으로 밀어서 멀리 굴릴 수 있다. 이동하면서 큰 공을 굴릴 수 있다.
난이도 조절	공의 무게나 크기를 늘린다. 보호자의 뺏으려는 힘을 증가시킨다.

활동명	공 던지고 받기
준비물	적당한 크기의 공
활동내용	공을 보호자와 마주본 상태로 던지고 받는다. 공을 줄 때는 최대한 가슴에 맞는 위치로 맞추어 느린 속도로 공을 준다.
난이도 조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을 던진다.(튀겨주기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미리 말하고 공을 던져준다. 공의 크기를 줄인다. 재질이 매끄럽고 탄성이 없는 공으로 바꾼다.

활동명	공 던져서 바구니에 넣기
준비물	공, 바구니
활동내용	바구니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서거나 앉는다. 떨어진 상태로 공을 던져 바구니 안에 넣는다.
난이도 조절	바구니와의 거리를 점점 늘린다. 바구니의 크기를 줄인다. 바구니의 위치를 바꾼다. 여러 개의 바구니를 두고 각각의 점수를 달리하여 경쟁한다.

활동명	공 튕기고 받기
준비물	공
활동내용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튕겨 올라올 때 두 손으로 잡는다. 공을 벽에 던지고 바닥에 튕겨 받는다. 튕긴 공이 멈추기 전에 잡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던지는 공의 크기를 줄인다. 공의 탄성을 조절하여, 강하게 튕기게 한다. 한 번씩 하는 것에서 드리블 하듯 여러 번 반복하는 것으로 바꾼다.

종이를 이용한 운동방법

활동명	카드 뒤집기
준비물	여러 장의 카드
활동내용	겹쳐진 카드를 한 장씩 위에서부터 차례로 뒤집는다.
난이도 조절	겹쳐진 카드의 양을 늘린다. 카드의 두께를 얇은 것으로 바꾼다. 카드가 뾰뾰한 것에서 잘 휘어지는 재질로 바꾼다. 카드를 뒤집을 때, 끌어서 잡지 않도록 한다.

활동명	책장 넘기기
준비물	책
활동내용	책을 펴고 앉아서 구겨지지 않도록 한 장씩 책장을 넘긴다. 책을 한 번에 접어 잡고 엄지손가락 끝으로 빠르게 책장이 넘어가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책장이 두꺼운 것에서 얇은 것으로 바꾼다. 코팅된 책장에서 코팅되지 않은 책장으로 바꾼다. 책을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활동명	종이 구기기
준비물	신문지 등 종이류
활동내용	양손으로 종이를 구긴다. 내려놓아도 퍼지지 않게끔 강하게 구긴다.
난이도 조절	한 번에 구기는 종이의 양을 많이 한다. 종이의 크기를 크게 늘린다.

활동명	종이찢기
준비물	종이
활동내용	종이를 자유롭게 찢는다. 종이에 그려진 간단한 직선을 따라 종이를 찢는다. 제시된 간단한 모양대로 종이를 찢는다.
난이도 조절	종이를 크게 찢는 것에서 작게 찢는 것으로 바꾼다. 얇은 종이에서 두꺼운 종이로 바꾼다. 제시된 모양을 간단한 것에서 어려움 것으로 바꾼다. 잡아뜯는 것에서 손가락으로 잡아 찢도록 한다.

활동명	종이 오리기
준비물	종이, 가위
활동내용	종이를 자유롭게 오린다. 그려진 선을 따라 종이를 오린다. 그려진 선을 따라 종이를 오리다 멈춘다. 제시된 모양대로 종이를 오린다.
난이도 조절	종이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 선의 굴곡을 늘여 간다. 제시된 선의 위치를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한다. 단순한 모양에서 복잡한 모양으로 바꾼다.

활동명	종이접기
준비물	종이
활동내용	종이를 사용하여 종이접기를 한다.
난이도 조절	색종이에서 두꺼운 종이나, 작은 학종이로 바꾼다. 간단한 종이접기에서 어려운 종이접기를 한다.

그리기 방법으로 운동하기

활동명	그림 그리기
준비물	종이, 펜
활동내용	종이에 펜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다.
난이도 조절	낙서에서 그리기로 바꾼다. 수직선 - 수평선 - 동그라미 - 십자가 - 네모 - 세모 - 마름모를 그리도록 한다.

활동명	그림 따라 그리기
준비물	종이, 색연필
활동내용	도형그림을 보면서, 아동이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난이도 조절	그림의 양을 많게 한다. 도형 1개 - 붙은 도형 - 겹친 도형 -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크기가 크고 단순한 그림에서 작고 복잡한 그림을 그린다.

활동명	선 따라 그리기
준비물	종이, 펜
활동내용	바탕에 연하게 그려진 그림을 따라서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 제공된 그림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제공된 그림이 단순한 모양에서 복잡한 모양으로 변화를 준다. 제공된 그림의 선이 두꺼운 것에서 얇은 것으로 변화를 준다.

활동명	점 따라 선 잇기
준비물	제시된 그림, 펜
활동내용	제시된 그림에 있는 점을 따라 선을 그어 그림을 그린다. 점에서 점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도록 그린다.
난이도 조절	점의 개수를 늘린다. 연결된 점의 위치를 다양하게 한다. 한 종류의 점에서 다른 종류의 점을 그려 각각 연결하게 한다.

활동명	색칠하기
준비물	그림이 그려진 그림, 색연필
활동내용	제공된 그림에 색칠을 한다. 색칠이 빈칸이 없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난이도 조절	자유색칠에서 색칠된 모델을 주고 똑같이 색칠토록 한다. 그림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화를 준다. 색연필에서 사인펜으로 바꾸어 칠하는 횟수를 늘린다.

활동명	칸 안에 그림 그리기/글씨 쓰기
준비물	여러 칸이 있는 종이, 펜
활동내용	평소 잘 그릴 수 있는 그림/글씨를 칸 안에 맞추어 그리도록 한다. 칸 밖으로 그려지지 않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단순한 모양에서 복잡한 모양으로 선택한다. 칸의 크기를 작게 한다.

활동명	밧줄 꺾기
준비물	책, 펜
활동내용	간단한 책을 보며 책의 글자 밑에 밧줄을 꺾는다. 선을 그으며 글자에 닿지 않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어린이용 책에서 일반 책으로 변화를 준다.

활동명	미로찾기
준비물	미로, 펜
활동내용	펜으로 선을 그려가며 미로찾기를 한다. 선을 그을 때, 미로의 벽에 최대한 닿지 않도록 한다. 그린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크고 쉬운 미로에서 복잡한 미로로 바꾼다.

동전을 이용한 운동방법

활동명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기
준비물	주머니, 동전
활동내용	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을 보지 않고 꺼낸다. 개수를 제공하고 동일한 개수를 꺼내도록 한다. 개수가 다를 경우, 다시 넣고 꺼낼 수 있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동전의 크기를 작게 한다. 주머니의 크기가 작은 것을 사용한다.

활동명	저금통 놀이
준비물	동전, 저금통
활동내용	동전을 하나씩 저금통에 넣도록 한다. 동전을 한 손에 쥐고 손 안에서 꺼내 한 개씩 넣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같은 종류의 동전에서 여러 종류의 동전으로 바꾼다. 동전의 크기를 작게 한다. 한 손에 쥐는 동전의 개수를 늘린다.

손을 이용한 운동방법

활동명	거미줄 놀이
준비물	-
활동내용	양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손의 모양을 만들도록 한다. 노래를 부르며 반복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예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코코코 등)
난이도 조절	속도를 높이거나, 활동을 복잡하게 한다.

활동명	고무줄 모양 만들기
준비물	고무줄
활동내용	고무줄을 손가락으로 늘려 모양을 만들도록 한다. (예시: 화살표, 별, 왕관, 십자가 등)
난이도 조절	한 단계씩 추가하여 구성을 복잡하게 한다.

활동명	박수/울동 놀이
준비물	-
활동내용	자리에 앉아서 리듬에 맞추어 박수를 친다. 자리에서 손을 사용한 울동을 따라한다.
난이도 조절	박수를 칠 때, 몸 중앙에서 치던 것에서 좌우나 위 아래로 움직이며 치도록 변화를 준다. 박수의 치는 방향/속도를 중간에 변화 시킨다.

활동명	‘세세세’ 놀이
준비물	-
활동내용	보호자와 같이 두 손을 사용하여 ‘세세세’ 놀이를 진행한다.
난이도 조절	반복되는 한 구간의 행동을 복잡하게 한다.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한다. 양손활동과 한손활동을 교차로 한다.

활동명	큰 물건 옮기기
준비물	다양한 크기의 물건
활동내용	다양한 물건을 자리에서 옮긴다. 다양한 물건을 자리에 맞게 이동시킨다.
난이도 조절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에서 지정된 위치로 이동시킨다. 물건의 크기와 무게를 늘린다. 여러 가지 섞인 물건에서 특정물건만 찾아 옮기게 한다.

활동명	작은 물건 옮기기
준비물	작은 물건, 통
활동내용	작은 물건을 집어서 통에 넣도록 한다. 핀셋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옮기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물건의 크기를 줄여간다. 물건의 형태를 각진 형태에서 둥그스름한 형태로 바꾼다.

활동명	멀리 있는 물건 가져오기
준비물	책상, 좋아하는 물건
활동내용	손이 닿는 거리보다 조금 먼 거리에 물건을 두고 이동하지 않고 가져오게 한다. 몸이 물건 방향으로 기울며 팔을 뻗을 수 있게 한다. 의자에 앉아 책상을 앞에 두고 물건을 멀리 둔 상태에서 몸을 뻗어 가져오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물건이 있는 거리를 조금씩 멀리한다. 물건을 제공하는 위치/높이를 변화를 준다.

그 외의 놀이방법

활동명	과자 봉지 열기
준비물	과자봉지
활동내용	봉지를 찢어서 옆으로 열도록 한다. 봉지를 양쪽으로 위로 뜯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봉지를 종이와 같은 쉬운 재질에서 비닐같은 미끄러운 재질로 바꾼다. 작은 봉지에서 큰 봉지로 바꾼다.

활동명	열쇠/문고리 돌리기
준비물	열쇠, 문
활동내용	잠긴 문에 열쇠를 꽂고 돌린다. 문고리를 잡고 돌려 문을 열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열쇠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꾼다. 바형 문고리에서 원형 문고리로 바꾼다.

활동명	블록 쌓기
준비물	블록, 나무블록
활동내용	끼울 수 있는 블록을 모양에 맞추어 쌓는다. 나무블록을 쓰러지지 않게 높이 쌓는다.
난이도 조절	끼우는 블록의 크기를 다양화 시킨다. 블록의 개수를 늘려 모양을 복잡하거나 높이를 높인다. 블록에 그림을 그려 정확한 방향으로 쌓을 수 있게 한다.

활동명	에어캡(뽁뽁이) 터트리기
준비물	에어캡
활동내용	에어캡을 바닥에 두고 손가락으로 눌러서 터트린다. 에어캡을 들고 손가락으로 집어서 터뜨린다. 에어캡을 돌돌 말아서 걸레 짜듯 쥐어짜 터트린다.
난이도 조절	에어캡에 무작위로 색을 칠해 정해진 색만 터트린다. 에어캡을 길게 준비하여 크게 말아 터트린다.

활동명	스티커 붙이기
준비물	스티커, 종이
활동내용	스티커를 떼서 종이 위에 붙인다.
난이도 조절	두꺼운 스티커에서 얇고 작은 스티커로 바꾼다. 자유롭게 붙이는 것에서 위치를 정해주고 붙이도록 한다. 평면에서 굴곡진 면에 붙이는 것으로 바꾼다.

활동명	드럼놀이/망치놀이
준비물	여러 개의 통, 막대기
활동내용	통을 놓고 앉아서 양 손에 막대기를 쥐고 통을 두드린다. 여러 개의 통을 두드린다.
난이도 조절	자유롭게 두드리는 것에서 박자에 맞추어 통을 두드리게 한다. 여러 개의 통에 각자의 이름을 주고, 부르는 이름에 맞추어 두드리게 한다.

활동명	바둑알 놀이
준비물	바둑알, 판
활동내용	판 위에 바둑알을 올려두고 구슬치기 놀이를 한다. 바둑판 위에서 오목 놀이를 한다. 놀이가 끝나고 자신의 돌만 골라서 집어 가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바둑알을 나누어 사용하다가 섞어서 사용하도록 한다. 판 위의 바둑알의 개수를 줄여간다.

활동명	낙시 놀이
준비물	자석 낙시대, 자석물고기, 통
활동내용	통에 물고기를 넣고 짧은 낙시줄로 낙시놀이를 한다. 낙시대의 끝의 추를 잡고 움직이게 하지 않고 낙시대를 잡고 조절하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큰 물고기에서 작은 물고기로 바꾼다. 낙시줄을 점점 길게 하여 사용한다. 통 속에 물을 채워 난이도를 높인다.

활동명	끈 묶기/풀기
준비물	색깔끈, 운동화
활동내용	끈을 구멍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지시에 따라 끈을 묶는다. 리본 끈을 당겨서 푼다. ※ 색깔이 있는 끈을 사용하여 언어적 지시 시에 색깔을 통한 지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끈 구멍을 딱딱한 것에서 천 계열로 변화시킨다. 끈을 두꺼운 것에서 얇은 것으로 바꾼다.

활동명	페트병 뚜껑 열기
준비물	페트병, 뚜껑
활동내용	약간만 열린 페트병의 뚜껑을 아동이 혼자 열게 한다.
난이도 조절	뚜껑이 잠긴 정도를 점점 강하게 한다. 뚜껑의 크기와 높이를 점점 작게 한다.

활동명	퓨티 놀이
준비물	퓨티류의 점토나 밀가루 반죽 등
활동내용	퓨티를 반죽하여 부드럽게 한다. 퓨티를 쥐어짜듯이 손자국을 낸다. 퓨티를 조금씩 떼어 일정한 모양을 만든다. 퓨티를 책상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밀어서 넓게 편다.
난이도 조절	퓨티의 점성을 강하게 한다. 모양 만들기를 쉬운 모양에서 어려운 모양으로 한다. 반죽을 만들 때, 책상면을 이용치 않고 손 안에서만 만들도록 한다.

활동명	클립 끼우기
준비물	클립
활동내용	여러 개의 클립을 서로 연결하여 길게 만든다.
난이도 조절	클립의 크기를 서로 다양하게 한다. 색이 있는 클립을 사용하여, 색의 규칙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연결하게 한다.

활동명	타자치기
준비물	키보드
활동내용	컴퓨터를 켜고 앉아서 키보드로 글자를 쓰도록 한다.
난이도 조절	손가락 한 개로 쓰는 것에서 느리더라도 여러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도록 한다. 타자치는 단어를 길게 한다.

활동명	피아노 놀이
준비물	피아노
활동내용	게이름을 건반에 표시한다. 보호자가 불러주는 게이름을 따라 피아노를 친다.
난이도 조절	한 개의 손가락에서 여러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칠 수 있도록 한다. 건반 누르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

5. 아동 개인별 안내자료

김민정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간단 색종이 접기	조작능력 증진, 눈-손 협응
공 주고받기	눈-손 협응, 신체조절 증진
스티커 놀이	조작능력 증진, 집기 연습
종이 찢기	근력 증진, 양손 협응
퓨티 놀이	양손 협응, 근력 증진, 지구력 증진, 조작능력 증진
색칠하기	지구력 증진
블록 쌓기	양손 협응

김도훈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공 주고받기	눈-손 협응, 신체조절 증진
드럼놀이	근력 증진, 양손 협응, 편위움직임 유도
세세세 놀이	양손 협응
퓨티 만들기	조작능력 증진, 양손 협응, 촉각자극 제공
에어캡 터트리기	분리된 움직임 유도, 조작능력 증진
저금통 놀이	조작능력 증진
페트병 뚜껑열기	양손 협응, 근력 증진

김은성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가동범위 운동	구축 방지, 가동범위 유지, 움직임 경험, 체성감각 자극
수동 움직임 제공	움직임 경험
뻗기 유도	자발적 움직임 경험, 체성감각 자극
정중선 모으기	안정감 제공, 신체상 형성
네발기기 자세	굴곡 경험, 어깨관절 자극

남궁지연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색칠하기	지구력 증진, 근력 조절, 손내조작 증진
퓨티 만들기	손내조작 증진
피아노/타자 치기	분리된 움직임 유도, 눈-손 협응
공 튕기고 받기	신체조절 증진, 눈-손 협응,
클립 끼우기	손내 조작 증진
종이 모양따라 오리기/찢기	손내조작 증진, 근지구력 증진, 눈-손 협응
바둑알 놀이	손내조작 증진

박성준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점따라 선 잇기	눈-손 협응, 조작능력 증진
카드 뒤집기	조작능력 증진, 전완 움직임 제공
종이 접기	눈-손 협응, 조작능력 증진
공 바구니에 넣기	유기적인 상지사용, 양손 협응
큰 공 굴리기	근력 증진, 양손 협응
피아노 치기	분리된 움직임 유도

박주성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수동 움직임 제공	움직임 경험, 체성감각 자극
상지 체중지지	관절 자극, 근육 자극
물건 가져오기	목적있는 움직임 유도, 뺨기 경험, 신체조절
큰 공 밀기	근육 자극, 어깨관절 자극

방세빈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종이 접기/오리기	양손 협응, 눈-손 협응
퓨티 놀이	지구력 증진, 관절가동범위 증진, 양손 협응
동전 꺼내기	조작능력 증진
박수/울동/세세세	양손 협응, 다양한 움직임 경험
공 던지고 받기	눈-손 협응, 근력 증진
피아노/타자 치기	분리된 움직임 유도
에어캡 터뜨리기	집기 경험, 양손 협응

이서연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수동 움직임 제공	움직임 경험, 체성감각 자극
상지 체중지지	어깨관절 자극, 근육 자극
퓨티 놀이	촉각 자극, 근력 사용 유도
물건 가져오기	근력 증진, 양손 사용 유도
정적 큰 공 밀기	근육 자극, 어깨관절 자극

최영민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공 던지기	근력 증진, 눈-손 협응
동전 꺼내기	조작능력 증진
큰 공 굴리기	근력 사용 유도
드럼/망치 놀이	근력 사용 증진, 양손 협응
종이 구기기	근력 사용, 잡기기술 증진

한지후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상지체중 지지	어깨관절 자극, 신체조절 유도
큰 공 안기	신체조절 유도, 가동범위 확보
작은 물건 옮기기	목적있는 활동 경험, 뽐기 경험, 눈-손 협응, 신체조절 유도
퓨티 놀이	촉각자극 제공, 조작능력 유도
종이 구기기/찢기	양손 움직임 유도, 근력 증진
박수 놀이	신체조절 유도, 체성감각 자극
드럼놀이	신체조절 유도, 양손 움직임 유도, 근력 증진

한지혁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미로찾기	눈-손 협응
카드 뒤집기	전완 움직임 유도, 집기기술 증진
낙시 놀이	양손 움직임 유도, 양손 협응
바둑알 놀이	조작능력 증진, 눈-손 협응
선 따라 그리기 / 점따라 선 잇기	눈-손 협응, 조작능력 증진
색칠하기	지구력 증진
피아노 치기	분리된 움직임 경험

김태역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수동 움직임 제공	가동범위 경험, 움직임 경험
물건 가져오기	신체조절 유도, 양손 사용 유도
정적 큰 공 밀기	근육 자극, 어깨관절 자극
네발기기 자세	굴곡경험 제공, 어깨관절 자극
양손 공잡기	양손 움직임 유도

이호진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큰 블록 쌓기	양손 협응, 눈-손 협응
저금통 놀이	조작능력 증진
문고리 돌리기	전완 사용 유도
공 던지기	상지 사용 유도, 눈-손 협응, 목적확정 유도
종이 구기기	근력 사용, 쥐기 유도
큰 공 굴리기	근력 증진, 양손 움직임 유도
퓨티 놀이	조작능력 증진, 촉각자극 제공

방상민 아동	
활 동 명	활 동 목 적
그림 그리기	조작능력 증진
점 따라 선 잇기	눈-손 협응
열쇠 돌리기	잡기 기술 증진, 눈-손 협응
책장 넘기기	잡기 기술 증진
밧줄 긋기	눈-손 협응,
공 받기	눈-손 협응, 양손 사용
세세세 놀이	양손 협응, 상지움직임 유도
에어캡 터트리기	쥐기/잡기 기술 증진

6. 결론

손은 일상생활에서 수저를 사용하고 글씨를 쓰는 도구적인 역할을 벗어나 놀이와 자아 실현 등의 심리적·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손이 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운동·배경적 요소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손의 기능에 따른 움직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크게 잡기(Grasp), 집기(Pinch), 손내조작(In-hand manipul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생 이후에는 반사 이후, 잡기부터 발달이 진행되며 이후 집기를 거쳐 손내조작 활동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숙달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령에 도달할 필요가 있지만, 다양한 연습을 통해 움직임의 숙달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평소의 놀이활동이 연습으로 전이가 될 수 있으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심리적·감정적 문제로 시도를 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흥미를 잃지 않도록 놀이 형식으로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가정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혼자 손을 사용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운동하는 방법을 제공하니, 아동과의 놀이활동에서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한다.

7. 참고문헌

1. J. Case-Smith(2005).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5). ELSEVIER MOSBY.
2. 양영애 역(2011).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작업하기. 영문출판사.
3. 유애열 외(2000). 엄마, 아빠 놀아주세요. 다음세대.

인지발달 놀이



팀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시	2016년 10월31일 ~ 2016년 11월25일
장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인지발달 놀이

1. 인지발달

어린이가 성장, 발달해 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인지기능의 변화를 말한다. 지적인 학습과 경험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으로, 지적 능력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발달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Piaget의 이론으로서 Piaget는 단순한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식의 본질, 즉 지식의 구조와 과정의 발달에 관해 연구하는 발생론적 인식론에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지식이 마음속에 표상되는 방법과 표상된 지식이 성장함에 따라 변해가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Piaget의 이론을 기초로 인지발달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Case의 신(新)피아제 이론이 있다.

2. 놀이

자발적이며 기쁨과 즐거움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인간의 생존과 관련 있는 활동과 일을 제외한 신체적·정신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놀이는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목적적 활동으로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가장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 활동이다. 놀이는 일정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전제로 하며 정서적 공감력과 정신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즐기려 하는 의지적인 활동이기도 하다. 놀이는 피로를 풀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생활에 탄력을 주고,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1) 놀이와 인지발달

어린이는 세상에 태어나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인지 학습을 한다. 여러 가지 놀이감과 흙, 나무토막, 돌멩이, 나뭇잎 등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노는 동안 각 물체의 무게, 질감, 색깔, 크기 등 구체적 지식을 학습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적, 수리적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2) 인지발달의 놀이

어린이가 놀이에서 사물을 사용하는 기술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놀이에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도움을 받아 요리 활동 참여 및 블록이나 다른 놀잇감을 활용하여 정교한 구성물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어린이는 여러 사물을 사용하는 놀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문제해결 전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연령이 증가와 함께 변화하는 어린이의 사물놀이 발달과정을 단순히 사

물을 기능적으로 다루는지 혹은 사물을 보다 창의적으로 다루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3) 놀이를 통한 어린이 인지발달 특성

인지 발달적 이론	인지발달 놀이의 종류	인지발달 특성
인지발달 자극	연습놀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 걷는 것, 통에 모래를 담는 것, 징검다리, 건너뛰기, 단순한 블록 쌓기, 장난감 가지고 놀기, 조각 맞추기 등	반복적 경험을 통한 인지
추상적 사고 발달촉진	상징놀이 -사물을 표현하는 기술, 모래성 쌓기, 블록으로 집짓기, 점토로 만들기 등	대상의 의미를 통한 상상력 추구
적응능력 신장	구성놀이 -블록(레고)종류, 퍼즐, 자석 모형판, 타일, 볼트와 너트, 연결관에 튜브 끼우기, 단추 끼우기 등	가변적 전형의 인식력 구현
융통성 개발	게임놀이 -윷놀이, 주사위게임, 도미노, 쌓기 게임, 구슬치기, 땅따먹기, 술래잡기, 야구 등	논리적 사고체계를 통한 가감 능력 인식
사회성 개발	역할놀이 -인형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기, 가상으로 의사 역할놀이하기, 우체국, 은행놀이 등	주제와 시나리오에 의한 상황 재현

①블록쌓기

블록을 잘 갖고 놀게 하려면 엄마가 먼저 몇 번이고 시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엄마와 아기가 같은 모양의 블록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 다음 먼저 엄마가 기차나 자동차 등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아이가 따라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 점차 복잡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좋으나 만일 엄마가 블록 쌓기에 자신이 없다면 엄마 역시 책을 보고 따라하면 된다.

②인형놀이

엄마 인형 하나, 아이 인형 하나씩 나누어 갖고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인형놀이를 해준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잠을 재워보면서 아이는 자기가 엄마

인 것처럼 엄마의 행동을 모방해서 인형에게 해주게 된다. 아이는 실체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하기 때문이다.

③종이접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종이를 접어본다. 아직은 구기는 식으로 종이를 접지만 반으로 접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면 아이도 따라서 접으려는 시도를 계속 해 본다. 아이가 접는 일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종이 양 끝에 스티커를 붙여두고 스티커끼리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것도 좋다.

④데칼코마니

도화지에 물감을 짜거나 그림을 그린 후 반으로 접었다 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보면서,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에 대해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⑤콩 옮기기

콩이나 구슬을 병에 가득 담고 쏟았다가 다시 주워 병에 넣는 놀이를 하면서 크기의 감각도 익히고 성취감도 맛 볼 수 있다. 아이가 질릴 때까지 반복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재료를 다양한 크기의 콩, 구슬, 단추 등으로 변화를 준다. 단, 입으로 가져가 삼킬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엄마가 옆에서 함께 도와주도록 한다.

3. 제언 및 결론

본 자료는 장애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발달 특성을 중심으로 인지발달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인지발달 놀이는 어린이 성장 발달을 위한 자율적 놀이 공간을 형성하여 전인적인 배움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지극히 주관적이며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어린이 인지발달에 따른 놀이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주현, 어린이의 인지발달에 따른 놀이 공간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은수 외, 놀이와 유아교육, 학지사, 2012
- 아이소파, <http://blog.naver.com/isopa950/220810968480>

수용/표현 언어발달 단계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6년 10월 1일 ~ 10월 31일
장 소	언어재활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수용/표현 언어발달 단계

1. 들어가는 말

이번 부모교육 주제로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의 언어발달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 하였고 자료는 크게 수용언어/표현언어 2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수용언어 세부항목(영상,명칭,신체부분,부정어,의문문,복수형,동사,위치,시제,수식어 이해), 표현언어 세부항목(발성,소리모방,대화,어휘,사물,의문문,시제,위치,수식어,동사,시제 표현)을 보시고 항목별로 우리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아직은 부족한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 수용언어(언어이해)측면

(1) 사물 - 영상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본다. ✦ 목소리, 얼굴표정, 몸짓에서 예뻐하는지 야단치는지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한다. ✦ 친숙한 가족, 장난감의 이름을 말하면 쳐다본다. ✦ 턱받이를 하면 식사하는 것이고 벨소리가 나면 누군가 온 것이라는 것 같은 소리나 사물을 보면서 연상을 한다. ✦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잠시 활동을 멈추고 머리를 돌린다. ✦ 자신의 이름에 적절히 반응한다.

(2) 사물 - 명칭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가족, 장난감, 옷과 같이 친숙한 것에 대해 말하면 쳐다보기 시작한다. ✦ 가족·자신의 이름, 빠이 빠이, 맘마, 컵, 우유 중 몇 개를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한다.
1~2세	✦ 3개 정도의 친숙한 사물의 이름을 말하면 가지고 온다. ✦ 양말, 컵, 손가락, 의자, 바지 등의 사물명칭을 말하면 적절히 지적한다.
2~3세	✦ 사물의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한다(예: 옷장문, 문손잡이). ✦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기 시작한다(예: "무엇으로 물을 마시지?"하고 물으면 컵을 지적 한다). ✦ 문, 목욕탕, 방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3) 사물 - 신체부분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1~2세	÷ “ ~가 어디 있지?” 물으면 정확히 지적한다.(예: 눈, 코, 입)
2~3세	÷ 배, 손, 발, 이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3~4세	÷ 무릎, 어깨, 손, 발을 지적한다. ÷ 혀, 목, 팔, 무릎, 다리, 턱, 이마, 뺨, 허리를 지적한다.
4~5세	÷ 오른손, 왼손을 지적한다.

(4) 부정어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안돼"라는 제지적 지시에 행동을 멈춘다.
1~2세	÷ "만지지 마"와 같은 부정적 명령에 손을 멈춘다. ÷ "책상에 올라가지 마"와 같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상황을 이해한다. ÷ "우유없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2~3세	÷ 부정적인 말을 이해한다(예: "oo이 장갑 아니야", "엄마 병원에 안 가", "누가 안 갔니?").

(5) 의문문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아빠, 어디 있지?"하고 물으면 아빠를 찾으려고 주위를 살펴본다. ÷ 간단한 질문에 몸짓이나 소리로 반응한다
1~2세	÷ 방에 있는 친숙한 사물이나 사람에 관하여 "이게 뭐야?", "누구야?"로 시작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의미를 이해한다. ÷ 간단한 질문에 긍정 또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낸다. ÷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한다. (예: "고양이는 어떻게 우니?, 강아지는 어떻게 우니?")
2~3세	÷ "누구"로 시작되는 질문을 이해한다. ÷ 그림책을 보며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을 이해한다. (예: "누가 어떻게 뛰어다니?", "개 어디있니?")
3~4세	÷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을 이해한다. ÷ "언제,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이해한다.

(6) 복수형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2~3세	÷ "한개, 많이" 차이를 이해한다.
3~4세	÷ "하나, 조금"을 사용해서 지시를 적절하게 따른다. ÷ "들"을 붙일 때 하나 이상의 사물을 잡음으로써 복수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다.
5~6세	÷ 사물을 셀 때 뒤에 붙는 단위의 차이를 이해한다. (예: 동물-마리, 사람-명, 교통기관-대, 사물-개, 연필-자루)

(7) 동사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몸짓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간단한 지시를 이해한다. (예: 빠이빠이 해봐, 손뼉쳐, 엄마한테 와.)
1~2세	÷ 일상적인 동사를 이해한다. (예: 봐, 먹어, 서, 앉아.) ÷ "아빠 신발 가지고 와", "문 닫아" 등의 지시를 수행한다. ÷ "아빠한테 가서 밥 잡수세요 해" 의미를 이해한다.
2~3세	÷ 다른 방에 가서 한번에 한 개의 사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 ÷ 모든 일상적인 동사들을 사용하는 지시를 수행한다. ÷ 두 개의 사물과 두 개의 동작이 포함되는 지시를 수행한다. (예: 엄마한테 공을 던지고 차 밀어줘)
3~4세	÷ 3개의 서로 관련없는 지시를 수행한다. (예: "차를 나한테 주고 앉아서 공 짚어") ÷ 다른방에 가서 한번에 3개의 다른 사물을 가지고 온다.

(8) 위치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손짓하면서 "이리와" 또는 "여기봐"하면 반응한다.
1~2세	÷ "안에(속에)" 의미를 이해한다. (예: 상자 안에(속에) 넣어") ÷ "밖에" 의미를 이해한다. (예: "밖에 나가자") ÷ "위, 아래(밑)"의 의미를 이해한다.
2~3세	÷ "위, 아래, 안, 밖"의 의미를 비교해서 이해한다. ÷ "옆"의 의미를 이해한다. ÷ "앞, 뒤"의 의미를 이해한다. ÷ 상자와 물건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부사어에 적절하게 반응 한다

(9) 시제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4세 이상	÷ "낮, 밤"을 이해한다. ÷ "여름, 겨울"을 이해한다. ÷ "어제, 오늘"의 의미를 이해한다. ÷ "내일"의 의미를 이해한다. ÷ "전에, 후에(나중에)"의 의미를 이해한다. ÷ "아침, 점심, 저녁"의 의미를 이해한다. ÷ "봄, 가을"을 이해한다. ÷ "작년, 내년"의 의미를 이해한다.

(10) 수식어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2~3세	✦ 익숙한 부사를 사용한 몇가지 지시를 이해한다. (예: "천천히 가", "조용히 해") ✦ "크다, 작다", "많다, 적다"의 개념을 이해한다.
3~4세	✦ "길다, 짧다"의 개념을 이해한다. ✦ "춥다, 배고프다"를 이해한다. ✦ "빠르다, 느리다"의 개념을 이해한다. ✦ "일찍, 늦게"의 의미를 이해한다.
4세 이상	✦ "같다, 다르다"의 개념을 이해한다. ✦ 비교 형용사의 의미를 알고 사물을 선택한다. (예: "크다, 더 크다, 가장(제일) 크다") ✦ "누가 더 좋아"하고 질문하고 적절히 반응한다. ✦ 비교급을 이해한다. (예: "더 커, 더 길어") ✦ "처음, 중간, 마지막(끝)"의 의미를 이해한다. ✦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의 의미를 이해한다.

3. 표현언어측면

(1) 발성능력 발달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아우"등 서로 다른 모음소리를 낸다. ÷ "크, 그, 응" 같은 목구멍 소리를 낸다. ÷ 모음과 자음을 결합하여 2음절 소리를 낸다. (예: "아호, 아다") ÷ 여러 음절로 웅얼이를 한다. (예: "바다다")
1~2세	÷ 단어 안에서 매우 빈번하게 자음을 사용한다. (예: "ㄷ, ㄴ, ㅎ") ÷ 한 단어 표현시에 초성에서 빈번하게 자음을 사용하며 종성에서는 가끔 자음을 사용한다.
2~3세	÷ 초성에서 "ㅍ, ㅁ, ㅎ, ㅂ, ㅅ" 등의 자음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 표현시에 80% 정도의 조음명료도를 나타낸다. ÷ 초성에서 "ㄴ, ㄷ, ㅌ, ㅊ" 등의 자음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3~4세	÷ 초성에서 "ㄱ, ㅋ, ㆁ" 등의 자음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 종성에서 "ㅇ" 자음을 사용한다.
4~5세	÷ 초성에서 "ㄹ, ㅈ, ㅊ, ㅊ" 등의 자음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 종성에서 모든 자음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5~6세	÷ "ㅅ ㅆ" 등의 자음을 사용한다.

(2) 소리모방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어른이 어떤 소리를 반복하여 주면 비슷한 소리를 모방한다. ÷ 아동이 낸 소리를 1분쯤 지난 후에 반복하여 주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모방한다. ÷ 전에 들은적이 없는 소리를 모방한다. 그러나 똑같이 모방이 안될 수도 있다. ÷ 어른과 놀면서 사용되는 소리들을 모방한다.(예; “멍멍, 야옹야옹”같은 동물소리)
1~2세	÷ 단어를 모방하기 시작한다. ÷ 전에 들은적이 없는 소리를 조금씩 친숙하게 들려주면 모방한다. ÷ 3음절로 된 소리를 모방한다.
2~3세	÷ “하나, 둘”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모방한다. ÷ 2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모방한다. ÷ 5개의 음절로 된 구 또는 절을 모방한다. ÷ 6개의 음절로 된 구 또는 절을 모방한다.
3~4세	÷ 3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모방한다. ÷ 8개의 음절로 된 구 또는 절을 모방한다.
4세 이상	÷ 3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모방한다. ÷ 예로 들려준 간단한 동요를 듣고 모방한다.

(3) 대화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부모에게 반응하려고 노력한다. ✧ 욕구를 표시하려고 손짓이나 말소리를 사용한다.
1~2세	✧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또는 손짓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지도한다. ✧ 욕구를 표시하려고 단어와 함께 손짓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 단어들을 결합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말한다. ✧ 약간 힘은 들지만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 오랫동안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논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알아듣기 어렵다.
2~3세	✧ 자신의 경험을 바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 대화에 참여한다. ✧ 자신이 지금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 이야기한다.
3~4세	✧ 생각, 경험을 이야기할 때 단어를 조직적으로 배열한다. ✧ 과거 상황들을 기억해서 이야기한다. ✧ 2-3일 전의 일들을 물어보면 대답한다. (예: 할머니 집에서 뭐했니?) ✧ 가상의 역할놀이를 하면서 혼자서 이야기한다. ✧ 단어의 뜻을 물어본다.
4세 이상	✧ 경험, 동화 등을 이야기한다. ✧ 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들려준 동화를 다시 말할 때 정확하게 4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전개시킨다. ✧ 농담 또는 수수께끼를 말한다. ✧ 책을 읽어주거나 동화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며 듣고난 다음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혼자 또는 아이들과 연극처럼 해본다.

(4) 표현어휘의 수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한두 개 단어를 뜻이 정확하게 사용한다. 대부분 일반사물 또는 가족 명칭이다. (예: "마마, 까까, 엄마") ÷ 3개 이상의 단어를 뜻이 정확하게 사용한다.
1~2세	÷ 5개 이상의 단어를 뜻이 정확하게 사용한다. ÷ 재잘거리는 말 중에서 몇 개의 의미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 2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간단한 절을 만든다. (예: 엄마 물) ÷ 대부분 명사인 약 200개의 표현어휘를 가지고 있다.
2~3세	÷ 주로 2-3개의 단어를 결합한 절을 사용한다. ÷ 상황에 따라 3단어를 결합한 절을 사용한다. (예: "문 열어 줘, 엄마 물 줘") ÷ 약 400단어의 표현어휘를 가지고 언어습득력이 빠르게 증가한다.
3~4세	÷ 약 900개 정도의 표현어휘를 사용한다.
4세 이상	÷ 계속적으로 추상적인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고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그 단어를 사용한다.

(5) 사물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0~1세	÷ "물→무", "새→날아가는 손동작" 같은 말소리 또는 몸동작으로 단어를 표현한다. ÷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1-2개의 명칭을 말한다. (예: 물, 까까, 우유)
1~2세	÷ 말하고 싶은 대상물을 부분적인 단어로 표현한다. (예: "아빠→빠, 우유→우, 할아버지→하비, 할머니→하니") ÷ 친숙한 사물 5개 정도를 정확하게 말한다. (예: "공, 멍멍, 까까, 컵, 신")
2~3세	÷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예: "더 줘") ÷ 일상적인 음식을 "~줘"라고 요구한다. (예: "고기 줘") ÷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고 질문에 대답한다. (예: "뭘로 밥 먹니? - 숟가락", "뭘로 종이 자르니? - 가위")
3~4세	÷ "눈, 코, 입, 손" 등의 신체부위 기능을 말한다. (예: "입→밥 먹어요", "눈→텔레비 봐요") ÷ 사물의 기능을 질문하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단어를 결합하여 대답한다. (예: "칼로 뭐하니? - 사과 깎아요", "가위로 뭐하니? - 종이 잘라요")
4세 이상	÷ 사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질문하면 대답한다. (예: 나무, 쇠, 유리, 형광, 밀가루) ÷ 다음과 같은 예를 정확하게 대답한다. (예: "모자는 머리에 쓰고 신발은 ___?") ÷ 어떤 사물을 정의할 때 그것이 속하는 집단을 말한다. (예: 개 - 동물, 사과 - 과일)

(6) 의문문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1~2세	÷ 사물의 이름을 끊임없이 묻는다. (예: "이게 뭐야?")
2~3세	÷ 질문을 하기 위해 끝을 올린다. (예: "먹어?") ÷ 의문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예: "뭐? 어디?") ÷ "누구"를 사용하여 사람의 이름을 묻는다. (예: "누구야?") ÷ 사물의 이름, 장소를 물어보기 위해 두 단어가 결합된 의문문을 사용 한다. (예: "아빠 어디?", "이게 뭐야?")
3~4세	÷ 3단어로 결합된 의문문을 사용하여 질문한다. (예: "지금 누가 자?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어디 가?")
4세	÷ "왜, 언제, 어떻게"의 의문사를 사용하여 질문한다.
이상	÷ 모든 의문사를 사용한다. (예: "뭐, 어디, 누가, 언제, 왜, 어떻게")

(7) 시제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2~3세	÷ 과거시제를 사용한다. (예: "병원 갔어", "회사 갔어")
3~4세	÷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예: "밥 먹고 있어", "세수하고 있어") ÷ 미래시제를 사용한다. (예: "밥 먹을 거야", "피자가게 갈꺼야")
4세 이상	÷ 시간표현을 위해 "오늘, 어젯밤, 그때"를 사용한다. ÷ "어제, 오늘, 내일"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 "그저께, 모래, 아침, 점심, 저녁" 등의 시간을 표현한다. ÷ "지난 주일, 다음 주일, 작년"을 말한다. ÷ 1주일을 순서대로 말한다. ÷ "후에, 나중에"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8) 위치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2~3세	÷ "위에, 아래"를 사용한다. ÷ "속(안)에, 밖에"를 사용한다.
3~4세	÷ 상자와 사물을 놓고 여러가지로 위치를 바꾸면서 "위, 아래, 안, 밖, 옆" 등을 적절 하게 사용한다. ÷ "앞에, 뒤에"를 사용한다. ÷ 한 문장 속에서 여러가지 위치어를 사용한다. (예: "책상 위에 우유가 있고 밑에는 휴지가 있어")

(9) 수식어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2~3세	÷ "더"를 말한다. ÷ "크다, 작다" 등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사물을 설명한다. ÷ 부사를 3단어 문장에서 사용한다. (예: "아빠 천천히 가, 아기 크게 울어")
3~4세	÷ "빨리, 늦게"를 적절히 사용한다. ÷ 4단어 이상의 문장에서 부사를 사용한다. (예: "엄마 문 빨리 열어") ÷ 생리적 욕구를 표현한다. (예: "배고파, 졸려") ÷ 사물을 설명할 때 그 사물의 특징에 대해 말한다. (예: "토끼는 귀가 길다", "공은 둥글다", "하늘은 파랗다") ÷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예: "밤들어 있는 옥수수빵 줘") ÷ 한 문장에서 두 단어의 부사를 사용한다. (예: "나는 빨리 갔는데 오빠는 늦게 갔어") ÷ 비교급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예: "언니가 더 커")
4세 이상	÷ 사물에 대한 반대개념을 표현한다. (예: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리다")

(10) 동사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1~2세	÷ 한개의 동사를 사용한다. (예: "뛰어") ÷ "~줘, 주세요"라고 요구를 말한다. ÷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두 단어로 결합된 절을 사용한다. (예: "공차", "차타", "엄마와", "문열어") ÷ 두 개의 동사로 결합된 절을 사용한다. (예: "뛰어가", "업고가", "앉아 있어")
2~3세	÷ 많이 접하는 일상동사들을 사용한다. (예: "와, 봐, 앉아, 서, 가, 안아, 내려, 일어나, 어브봐, 줘, 열어") ÷ 동사를 3단어로 결합된 문장에서 사용한다. (예: "아빠 회사 갔어", "나 버스 타")
3~4세	÷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뭐하고 있지?"라고 물으면 대답한다.
4세 이상	÷ 수동문을 표현한다. (예: "엄마가 애기옷을 입혀줘어. 내가 애기 단추를 끼웠어")

(11) 시제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1~2세	÷ "지금"의 의미를 이해한다.
4세 이상	÷ 낮, 밤"을 이해한다. ÷ "여름, 겨울" 계절을 이해한다. ÷ "어제, 오늘"의 의미를 이해한다. ÷ "내일"의 의미를 이해한다. ÷ "전에, 후에(나중에)"의 의미를 이해한다. ÷ "아침, 점심, 저녁"의 의미를 이해한다. ÷ "봄, 가을"을 이해한다. ÷ "작년, 내년"의 의미를 이해한다.

(12) 접속사

연 령	언어 발달 과정
4세	÷ 접속사를 사용하여 간단한 절을 연결시킨다.
이상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데, 왜냐하면)

4.마치며

수용언어/표현언어, 연령, 세부항목을 보시고 우리아이에게 아직은 부족한 것에 대해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단계에 맞는 언어적 축진을 가정에서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가정에서 우리아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민우의 언어치료 - <http://cafe.naver.com/slp1004>

구강 안면 근육 마사지 프로그램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6년 10월 1일 ~ 10월 31일
장 소	언어재활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구강안면근육마사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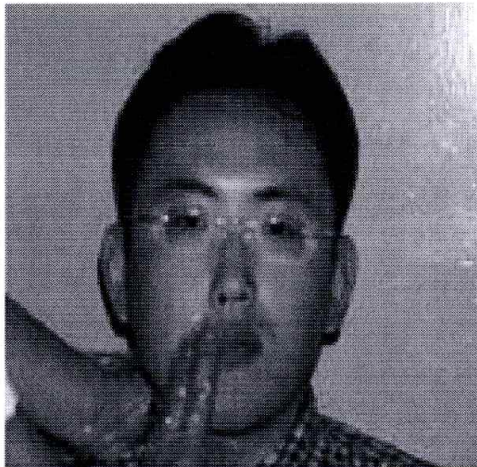
1.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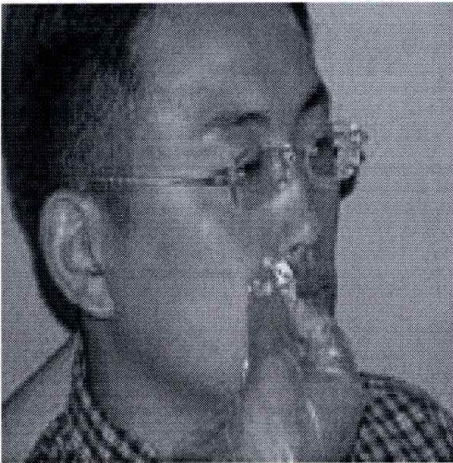
이번 부모교육 자료로 구강 안면 근육 마사지 프로그램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자료에 사진을 첨부하여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가정에서 꼭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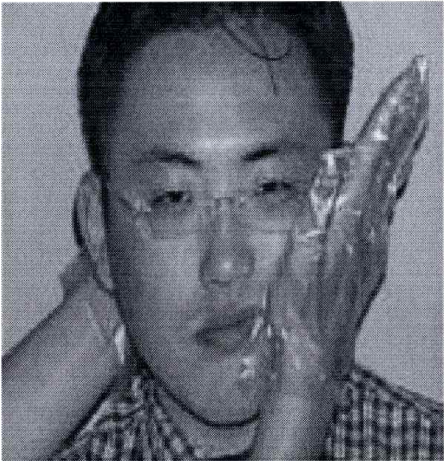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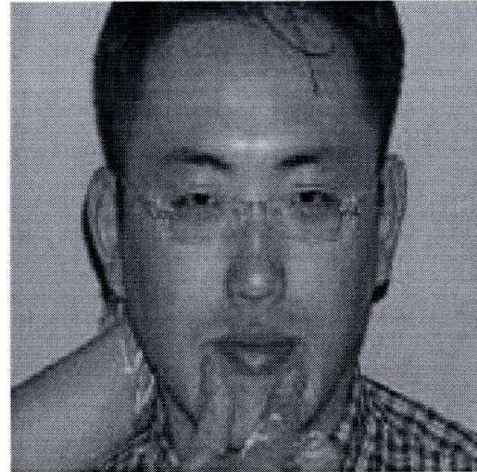
2. 주의할 점

마사지 시간은 10분 이내, 한방법당 8회, 손 청결 유지, 하루에 3회(아침, 점심, 저녁) 실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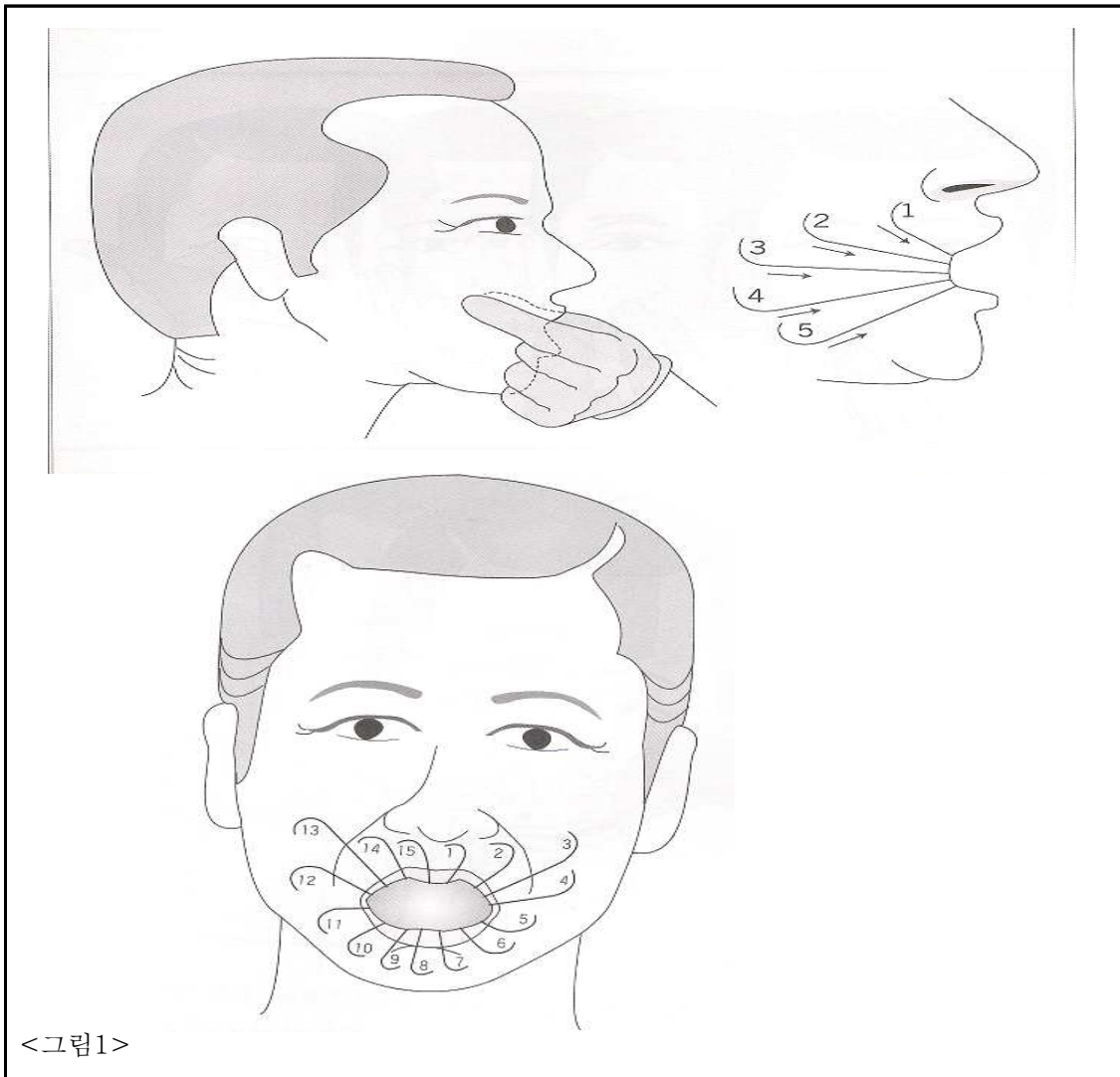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진행 방법 및 유의점

	<방법 및 유의점> 1. 그림과 같이 인중에 중지와 검지를 위치시킨다. 2.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오른쪽 입꼬리를 향하면서 아래 방향으로 끌어내린다. 3. 인중에서 다시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왼쪽 입꼬리를 향해 아랫방향으로 끌어내린다. 4. 양쪽으로 천천히 5회 실시한다. <효과> 1. 윗입술을 신장시킨다. 2. 입술의 폐쇄를 증진시킨다.
--	--

	<방법 및 유의점> 1. 엄지를 제외한 오른 손가락을 오른 턱에 위치시킨다. 2. 오른쪽 턱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눈썹까지 손바닥을 뺨에 밀착시켜 밀어올린다. 3. 볼근육을 눈썹 쪽으로 반복해서 신장시킨다. 4. 항상 턱에서 시작하되 부드럽고 적당한 압력으로 밀어올린다. 5. 오른쪽 뺨에서 5회 실시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에서도 실시한다. <효과> 1. 볼근육을 신장시키고 힘을 증진시킨다.
 다음페이지 <그림1> 참조	<방법 및 유의점> 1. 그림과 같이 검지를 입 안쪽에 놓고 엄지를 볼 바깥쪽에 놓는다. 2. 검지와 엄지로 볼을 가볍게 누른 다음 입술 쪽으로 잡아당긴다. 3. 다음페이지 <그림1>에 매겨진 번호순에 따라 손가락을 옮기면서 실시한다. 4. 제한된 볼근육을 신장시키기 위해 천천히 실시한다. 5. 다른 쪽 볼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효과> 1.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볼 근육 조직을 스트레칭 한다. 2. 볼 근육의 힘을 증진시킨다.

	<방법 및 유의점> 1. 광대뼈 아랫부분에 손바닥을 위치시킨다. 2. 볼에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마치 광대뼈를 들어올리 듯이 밀어 올린다. 3. 양볼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효과> 1. 코 부위의 긴장도를 증진시킨다.
	<방법 및 유의점> 1. 턱에 엄지와 검지를 V자 모양으로 위치시킨다. 2. 턱선을 따라 하악 관절까지 바깥쪽으로 밀어올린다. 3. 항상 턱에서 시작하고 바깥쪽으로 밀어올린다. <효과> 1. 턱 근육의 과긴장성을 감소시킨다. 2. 턱 근육의 힘을 증진시킨다.
	<방법 및 유의점> 1.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양쪽의 측두 하악 접합부에 적당한 압력을 가한다. 2. 원을 그리며 문지른다. 3. 턱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한다. 4. 반대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한다. <효과> 1. 턱의 긴장을 감소시킨다. 2. 턱 근육을 강화시킨다.

[출처] 민우의 언어치료 - <http://cafe.naver.com/slp1004>



동기유발과 교육환경의 조절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6년 10월 24일 ~ 2016년 11월 18일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동기유발과 교육환경의 조절

우리는 할 것이라고 마음먹었던 일도 누군가 억지로 시키면 괜히 하기 싫어진다. 태어난 후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아이가 한 해, 두 해 지나며 성장을 한다. 신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논 뒤에는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하며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고 사회 규범을 배워 나가야 한다. 당연히 처음부터 잘되지는 않지만 억지로 시키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른 생활 어린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며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를 챙긴다. 그렇다 보니 정작 아이 혼자 무언가를 시도해볼 기회가 적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아이가 혼자 잘해낼지 불안하기도 하고 옷과 식탁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걸 지켜보느니 대신 해주는 게 훨씬 속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 시기 또한 함께 늦춰진다. 아이의 시도가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이의 어설픈 행동을 끈기 있게 지켜보며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물론 아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또한 높아질 것이다.

1. 동기

동기는 개인의 행동수준이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동기를 학습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학습활동 의욕을 환기시켜주기 때문에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라고 부른다.

학습동기의 유발과 더불어 평소 생활에서 아이에게 동기를 주어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면 학습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일상생활 속 아이에게 동기부여하기

1) 물질적 보상이 동기 부여가 되는 건 아주 잠시뿐이다.

아이에게 ‘~하면 OO 사줄게’ 식의 보상을 제안하는 것.

당근과 채찍은 잘만 활용하면 효과적인 육아 전략이 되지만 자칫 과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아이가 보상이 있을 때에만 행동한다거나 보상물이 흡족하지 않을 경우 실망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물질적 보상만이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다. ‘세수하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예쁘네’ 같은 따스한 말도 심리적 보상이 된다. 아이의 상황을 공감해주며 씻기, 정리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아이 스스로가 뿌듯하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동기를 부여한다. 공감과 미소, 진심이 담긴 칭찬은 아이로 하여금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를 갖게 한다.

2) 적당한 무관심도 필요하다.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하려 할 때 한 발짝 떨어져 가만히 지켜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고심 끝에 아이에게 ‘동기’를 주었는데 아이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조바심이 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노력하고 실패도 해봐야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매번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면 아이는 결국 자립심을 잃는다. 때로는 엄마의 동기 부여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당히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3) 지시가 아닌 ‘제시’를 한다.

부모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되 아이가 지닌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이끌어 방향을 제시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또 아이 스스로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지시’ 대신 ‘제시’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아이에게 ‘제시’를 할 때에는 아이가 저절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간단명료하면서 정확하고, 어렵지 않으면서 천천히 순서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부모, 교사가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것 좀 해’, ‘그건 좀 하지 마’가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아무리 이 닦으라고 해도, TV 그만 보고 식탁에 앉으라고 해도 단번에 말을 듣는 아이는 별로 없다. 아이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가 할 거야’ 속성을 이용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다. 유치원 갈 시간이 늦었는데 아이가 옷도 안 입고 누장을 부린다면 ‘옷 좀 빨리 입어. 이러다 늦겠다’라고 채근하는 대신, ‘오늘은 나폴나폴 원피스 입을까, 아니면 코코몽 티셔츠 입을까?’하며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선택권이 아이에게 동기가 된다.

4) 지적 아이템으로 학습 동기를 자극한다.

아이 방에 한글 글자판을 붙여두거나 냉장고에 글자 자석을 붙여주는 식.

처음에는 글자판이 있든 말든 무심코 바라보거나 냉장고의 자석을 떼었다 붙이곤 할 것이다. 가끔 의도적으로 ‘가지’, ‘바다’, ‘나비’같은 쉬운 글자를 배치해놓고 아이는 어떤 날은 무관심할 테고 또 어떤 날은 글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글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글자를 눈으로 익힌 상태라면 학습의 진행이 더욱 수월할 것이다.

5)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주변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 먹고 자고 노는 등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집 곳곳을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 물 줘’라고 말할 때 아이 혼자서도 물을 따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밖에 나갔다 왔으면 손부터 씻어야지’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 스스로 언제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발 받침 스톨을 세면대 앞에 놓아두고, 욕실 수건걸이 아래 아이 손이 닿을 높이에는 작은 옷걸이를 붙이고 아이 전용 수건을 걸어주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할 일을 스스로 해보는 작은 연습이 쌓이면서 아이는 성장한다.

6) 책의 표지를 보이게 책을 놓는다.

아이가 어리다면 일정한 공간에만 책을 두기보다 집 안 곳곳 손 닿는 곳에 책을 놓아두는 것이 좋다. 특히 책장에 빼곡하게 꽂힌 책보다 오히려 소파나 식탁, 선반 등 아이 손이 쉽게 갈 만한 곳에 책을 펼쳐두는 편이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온다. 서점에 가보면 잘 나가는 신간들은 앞면이 잘 보이도록 눕혀놓는다. 표지가 잘 보이는 책은 호기심을 갖고 넘겨보게 되듯이 집에서도 서점처럼 책의 앞면이 보이도록 책을 비치해둘 필요가 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고 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3. 교육환경의 조절

가정에서 아이와 학습하는 경우 환경을 조금씩 바꿔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환경의 조절

- (1)난이도 : 아동의 흥미, 수준에 맞는 내용이어야 한다.
- (2)공간 : 학습공간은 아이의 주위가 산만하지 않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구별해주면 하나에 집중하기가 더 쉬워진다.
- (3)시간 :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제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 제시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
- (4)언어 :
 - ①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 ②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점만 표현한다.
 - ③ 아동과 눈을 맞추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 ④ 말하기 전이나, 말을 하는 도중에 아동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다.

2) 직접적 지시

- (1) 칭찬과 관리 : 아동이 어떤 상황이든 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즉각적으로 칭찬을 주어야 한다. 또래 아동과 차별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보다, 잘못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고 보통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볼아야 할 것이다.
- (2) 지지적인 분위기 : 아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심리적인 불안이 많은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심리적인 편안함을 제공해준다.
- (3)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두려움은 자주 기회를 줌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이 말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들어주도록 한다.
- (4) 아동이 주도하는 활동 : 학교 수업은 대부분 교사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방법

으로 가르치므로,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4. 마치며

아이의 기본적 학습의 장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의 발달과업에 맞는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공하는 자극과 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이의 동기도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동기를 주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아이가 된다면 학습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아이에게 동기를 주고 학습 환경을 조절하여 아이의 인지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마음을 여는 대화와 놀이방법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6년 11월 10일 ~ 11월 30일
장 소	미술심리지원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음을 여는 대화와 놀이방법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줌으로써 아이와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신뢰감과 유대감,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몸짓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정을 이해받은 아이는 금방 감정을 추스르고 안정을 찾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은 경험이 풍부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을 잘 처리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감정과 친해지기

7가지 기본 감정(행복, 흥미, 분노, 경멸, 두려움, 혐오감, 슬픔)은 인종과 문화를 뛰어 넘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7가지 기본 감정으로부터 파생된 유사 감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사랑스러움, 고마움, 유대감, 황홀감, 극치감, 명량 쾌활함, 만족감, 하늘로 붕 뜨는 느낌, 반가움, 감사함, 기쁨

·흥미: 기대감, 관심, 열심, 몰두감, 재미, 흥분

·분노: 짜증, 불쾌감, 불만, 격노, 시기심, 좌절, 화

·경멸: 무례함, 비판적, 씹쓸함, 거부감

·두려움: 불안, 겁남, 걱정스러움, 혼란스러움, 경악, 예민함, 무서움, 소심함, 불편함

·혐오감: 기피하고 싶음, 싫어함, 증오, 구역질

·슬픔: 우울, 기분이 처지고 가라앉음, 절망, 실망, 미안함, 불행감, 비통함, 후회스러움

이러한 감정들은 한가지나 두개 이상의 복합된 감정들을 겪으며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며 순간 순간의 감정들을 모두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일지 쓰기를 통해 어떤 감정을 어떤 상황에서 느꼈는지, 감정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적어두면 감정과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요일	감정	상황 (감정을 유발한 상황이나 장면)	주관적 감정의 강도 (1~10으로 기록) *가정 낮을 때 1, 가장 강할 때 10으로 한다.
월			
화			
수			
목			
금			
토			

나 자신의 감정과 친해질 수 있어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 수용해주기가 쉽습니다.

2. 마음을 여는 대화

말로써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3%는 눈빛, 말투, 억양, 태도 등으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은 말보다는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대화의 기술은 단지 말을 하는 요령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고, 표정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온몸으로 소통해야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경청’(아, 그렇구나)과 ‘수용’(많이 힘들었겠구나)입니다.

1) 감정은 다 받아주고, 행동은 한계를 정해준다.

감정은 충분히 공감할 하지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행동의 한계보다는 단순하게 정할 수 있으며 ①남에게 해로운 행동, ②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은 안 된다고 한계를 긋는 것입니다.

2) 자기감정에 솔직한 부모가 아이 감정도 잘 안다.

아이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주려면 먼저 부모 자신의 감정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의 근원, 초감정 알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그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다른 감정이 깔려 있는 감정을 초감정이라고 하며 메타 감정 meta emotion 감정 뒤에 있는 감정, 감정 넘어서는 감정, 감정에 대한 생각, 태도, 관점, 가치관 등입니다. 자신의 초감정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며 자신이 어떤 초감정이 있는지 모른다면,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초감정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고, 부정하거나 없애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그런 초감정이 있다는 것만 인식해도 충분합니다.

3) 나-전달법

초감정에 대해 ‘나-전달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①먼저 상황에 대해 중립적으로 말한 뒤, ②그때의 감정을 묘사하고, ③원하는 바를 요청한다.

나-전달법 사용 시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요소

- (1)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 (2)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3)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나-전달법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큰소리로 화내실 때(상황) 참 무섭고 싫었거든(감정). 그래서 네가 큰 소리로 대들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진다(감정). 그러니 아빠한테 말할 때 좀 더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해주면 좋겠다(요청).”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3. 놀이방법

부모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①단순한 놀이상대가 되어주는 것, ②중재자, ③코치 역할입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줄어드 약간 수준을 높여 도전을 주거나 아이가 모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살피가면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놀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끼리 놀다 종종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개입하여 사이좋게 나누거나 순서대로 놀도록 중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놀이의 규칙을 따르도록 코치해주며 규칙을 어길 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0~12개월

아이와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노는 시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모두 꺼놓는다.

①시각놀이 : 생후 5~6주부터 아기는 미소 짓기 하며, 3개월부터 장난감을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면 물체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며 예로는 까꿍놀이가 있다.

②청각놀이 : 청각은 아주 느리게 발달하며 딸랑이를 흔들어주거나 음악을 들려 주면 아기가 즐거워하며 청각 발달에 도움이 된다.

③시각+청각놀이 : 단음절 모방하기 놀이를 해주면 아기의 청각은 물론 시각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아, 에, 이, 오, 우’ 입모양을 크게해 보여 주면 아이가 천천히 따라합니다.

④미각+후각놀이 : 이유식을 할 때 이유식 냄새를 맡고 맛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⑤촉각놀이 : 생후 6~9개월 때 기어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때 촉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마사지 해주기, 부드러운 물체 손으로 잡기, 발로 부드러운 쿠션 위를 차기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다.

⑥언어놀이 : 생후 3~6개월 정도부터 웅얼이를 시작하는 시기이며 아이 웅얼이를 따라하는 놀이를 할 수 있다.

⑦숨은 물건 찾기 : 생후 9~10개월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장난감을 보여준 뒤에 수건으로 덮어두면 아기는 수건을 치우고 아래 놓은 장난감을 발견하며 즐거워한다.

⑧신체 찾기 놀이

생후 12개월에 눈, 코, 귀, 입 등 신체 찾기 놀이를 할 수 있으며 거울을 보여주면서도 가능하다.

⑨기타 놀이

아이에게 일상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자 놀이이다. 목욕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 입히기, 자장가 불러주기 등 모두 놀이처럼 할 수 있다.

2) 만 24개월

①혼자놀이 : 혼자서 블록 쌓기나 퍼즐 맞추기 등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다.

②규칙놀이 : 함께 놀 때 간단한 규칙을 이해하며 예를 들어 “때리는 것은 안 돼요”하고 가르쳐 줍니다.

③기억놀이 : 뒤집어 놓은 카드의 짝 맞추기 놀이 등 기억을 이용한 놀이를 할 수 있다.

④운동감각 : 어른의 도움을 받아 세발자전거를 탈수 있으며 혼자 옷 입고 벗는 것을 놀이처럼 할 수 있다.

⑤자기 보살피기 놀이 : 스스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

⑥상상놀이 : 인형에게 말을 걸거나 전화로 상상 속의 인물과 대화 할 수 있다.

⑦기타 놀이 : 종이, 색연필, 스티커 등 칠하고 그리고 문지르고 붙이고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3) 만 36개월

①상상놀이 : 24개월이 상상놀이보다 발전한 형태의 상상놀이 소꿉놀이, 슈퍼맨 등 상상속의 주인공이 되거나 함께 노는 것을 즐거워한다.

②탐험놀이 :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호기심이 늘어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③나눔놀이 : 친구들과 장난감을 공유하며 놀 수 있다.

④질문놀이 :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아이에겐 질문을 하는 것도 훌륭한 놀이이다.

⑤동화 만들기 놀이 : “옛날 옛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다음 나머지는 아이가 말하도록 이끌어 주는 방법이 좋다. 아이의 상상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재미있게 들어주며 호응해준다.

⑥운동감각 놀이 : 간단한 가위질을 할 수 있다. 머리 위로 공을 던질 수 있다. 아빠와 함께 신체적 운동 놀이를 통해 운동감각, 자신감, 지도력을 키우고 또래 관계를 좋게 한다. 음악에 맞춰 춤을 줄 수 있다.

⑦개성 찾기 놀이 :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는 등 개성과 취향을 표현한다.

⑧자연 돌보기 놀이 : 식물을 가꾸고 애완동물을 돌보기하며 “꽃이 목마르네”, “강아지가 졸린 것 같아” 등 감정 이입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

4) 만 48개월

①만족 지연 놀이 : 사탕이나 과자를 식사 전에 먹지 않고 식사 후에 먹을 경우 하나 더 준다고 약속하면 대개 기다릴 수 있다. 모래시계와 같이 눈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을 두고 기다리게 하면 좀 더 쉽게 기다릴 수 있다.

②숫자 놀이 : 대개 하나에서 열까지 숫자를 셀 줄 압니다. 숫자를 셀 수 있는 다양한 살림 도구로 세기 놀이를 할 수 있다.

③수수께끼 놀이 : 간단한 농담을 알아듣고 수수께끼 푸는 것을 즐긴다.

④퍼즐 맞추기 놀이 : 과제를 끝마치는 것을 좋아하며 끝까지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계량하기 놀이 : 키를 줄자로 재거나 몸무게를 달아보면서 이전보다 얼마나 키가 크고 체중이 늘었는지 표시해주면 좋아한다. 생일이나 새해 첫날 손이나 발 모양을 종이에 펴서 본뜨기하여 해마다 손, 발이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⑥‘무엇이 가장~’놀이 : 더 길다, 가장 길다, 더 크다, 가장 크다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이나 사물을 놓고 ‘가장~한 것 찾기’놀이를 하면 좋다.

⑦운동감각 놀이 : 한 발로 뛸 수 있고, 공을 머리 위로 던질 수 있으며, 공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다. 평형감과 운동감을 자극하는 한 발 뛰기나 트램폴린 등을 좋아한다.

⑧자랑 놀이 : “내가 잘하는 것은~”하면서 순서를 바꿔가며 말한다. 자기 자랑을 하며 자존감을 키운다. 이때 비웃거나 핀잔을 주기보다 “그것을 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구나”, “정말 잘하네”하면서 공감하고 수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⑨음식 만들기 놀이 : 아이가 직접 달걀에 깨어서 저어보거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를 만들거나, 떡 반죽을 하여 송편을 만들어본다. 음식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다.

5) 만 60개월

①규칙만들기 놀이 : 또래와 놀다가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우리 이렇게 하자”, “술래잡기할 때는 열까지 세는 동안 보면 안돼”하면서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키며, 필요에 따라 규칙을 바꾸거나 만들기도 한다.

②게으름 피우기 놀이 : 심심해할 시간을 주는 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다.

③긴장 이완 놀이 : 요가나 스트레칭, 눈 감고 상상하기 등의 시간을 함께하면 아주 좋으며 정해진 시간에 잠깐씩 한다.

④친척 방문하기 : 조부모님이나 친척, 사촌을 방문하는 것을 아주 흥미로워한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걸기나 메일 보내기 등도 유대감 형성과 친인척 관계 유지에 좋다.

⑤냉장고 문에 가족사진 붙이기 :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등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가족이 매일 여닫는 냉장고 문에 가족 사진이나 개인사진, 특별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붙여놓는다.

⑥책 읽기 : 아이는 혼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여전히 어른이 읽어주는 걸 더 좋아한다. 긴 문장은 엄마가 읽고 짧은 문장은 아이가 읽거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좋다.

6) 만 6세

①‘내가 좋아하는 것’ 놀이 : ‘내가 좋아하는 ~’ 등 아이가 좋아하는 세계를 알아보는 놀이이다. 집에서 가족과 즐겨 한다면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할 수 있다.

②공감놀이 :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으며 독서가 공감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며 공감력이 큰 아이들 또한 독서를 좋아한다.

③가사 돕기 놀이 : 가사 돕기를 놀이처럼 할 수 있으며 엄마가 음식을 만들면 아이가 수저를 놓는 다는가, 아빠가 설거지 할 때 아이는 식탁을 닦는 등 가사 분감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

④서랍 정리하기 : 숟가락, 젓가락, 양말, 셔츠 등을 분류하는 것을 좋아하며 제자리에 갖다놓게 하는 것도 좋다. 함께 분류하며 정리하는 것은 재미도 있고 부모도 덜 힘들 뿐 아니라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다.

⑤옷 바꿔 입기 놀이 : 아이는 엄마, 아빠의 옷, 신발 등을 입거나 신고 싶어 한다. 할로윈 의상 등을 마련해 친구들을 초대해서 즉흥 역할극을 하는 것도 좋다.

⑥가면놀이 : 동물 얼굴이나 동화 속 인물 등의 가면을 만들어 간단한 연극을 해 보면 좋다. 다양한 성격을 자연스럽게 연출해볼 수 있다.

⑦엮어주기 : 돌보는 놀이를 좋아하며 순서를 바꿔가며 엮어주기 한다.

⑧학교 놀이 : 선생님 역할, 학생역할을 바꿔가며 하는 것을 재미있어하며 놀이를 통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 학교, 공부, 친구, 학생, 자신 등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다.

⑨구슬 꿰기 놀이 : 좀 큰직한 구슬은 꿰 수 있으며 미세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7) 만 7세

①블루마블 놀이 : 돈을 셀 줄 알아서 블루마블 같은 보드 게임을 좋아한다.

②블록놀이 : 완성할 수 있는 만들기 등을 좋아한다. 어른이 찾아주기 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 좋다.

③악기 배우기 : 피아노나 기타 등 악기를 배우면 효과적이다. 리듬, 템포, 멜로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면서 음악 속의 내적 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④그림으로 표현하기 :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가리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단체 운동놀이 : 또래와 함께하는 단체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즐기는 시기이다.

⑥봉사활동 : 부모와 함께 쓰레기 줍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기 등을 경험하는 것은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며, 자신이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체험은 자긍심, 감사심, 배려심, 자신감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⑦개인 운동: 자전거, 스케이트, 수영, 댄스 등 여러 운동을 할 수 있고 좋아한다.

8) 만8~11세

①세탁놀이 : 실제 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기를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할 수 있다.

②자연관찰 놀이 : 산과 바다, 캠핑, 낚시, 여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새, 물고기, 애완동물 키우거나 화초 가꾸기 등도 책임감을 키우고 정서를 교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일기 쓰기 :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차분하게 정리된다.

④혼자 있기 : 방 한쪽에 큰 박스로 개인공간을 만들어주어 혼자 상상하고 그림

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한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할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5. 제언 및 결론

아이들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화 방법으로 나 전달법을 소개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3개월 정도 노력하여 사용해보면 아이와의 갈등도 줄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놀이방법을 통해 아이와 즐겁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문헌

최성애·조벽·존 가트맨(2011). 최성애·존 가트맨 박사의 내 아이를 위한 감성코칭.
한국경제신문 한경BP

장애인건강 및 재활정보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16년 11월 3일 ~ 11월 11일
장 소	복지관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건강 및 재활정보

1. 운동실천하기

1) 운동의 필요성

장애인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게 되면 혈압이 하강하고 비만이 예방되며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도 좋아질 뿐 아니라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기능 저하를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운동시 주의사항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 골절, 기타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실시해야하며 본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운동 동작 및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 ① 나에게 맞는 신체활동을 하자.
- ② 조금씩 증가시키자.
- ③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자.
- ④ 올바른 방법으로 근력 운동을 하자.
- ⑤ 노인들은 낙상에 주의하자.
- ⑥ 안전하게 운동하자.

출처 :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보건복지부(2014)

3) 운동에 참여해 보세요!

- ① 아동들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함께 실시해 보세요!

걷기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신체활동입니다.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으로 낮은 강도의 운동이지만 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건강 및 재활정보

1. 운동실천하기

1) 운동의 필요성

장애인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게 되면 혈압이 하강하고 비만이 예방되며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도 좋아질 뿐 아니라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기능 저하를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운동시 주의사항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 골절, 기타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실시해야하며 본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운동 동작 및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 ① 나에게 맞는 신체활동을 하자.
- ② 조금씩 증가시키자.
- ③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자.
- ④ 올바른 방법으로 근력 운동을 하자.
- ⑤ 노인들은 낙상에 주의하자.
- ⑥ 안전하게 운동하자.

출처 :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보건복지부(2014)

3) 운동에 참여해 보세요!

- ① 아동들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함께 실시해 보세요!

걷기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신체활동입니다.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으로 낮은 강도의 운동이지만 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걷기 목표>

매우 활동적	활동적	다소 활동적	비활동적
어린이, 청소년, 건강한 어른	성인	중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

- ▶매우활동적인(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건강한 어른) 사람 : 10,000~16,000보
- ▶활동적인(성인) 사람 : 10,000보
- ▶다소 활동적인(중년) 사람 : 7,000~10,000보
- ▶비활동적인(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 사람 : 4,000~7,000보
(당뇨병, 심장질환, 관절염, 그 외 중증 질환자들은 의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걷기>

- 자세: 상체를 똑바로 펴고 바른 자세로 서서 몸에 힘을 빼고, 턱은 당겨 목을 바로 세웁니다. 가슴은 펴고, 배는 등 쪽으로 집어 넣습니다.
- 시선: 머리를 든 상태로 정면의 10m 앞을 주시
- 팔: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자신의 옆구리를 스치는 정도로 앞뒤로 흔들어 줍니다.
- 보폭: 키의 40% 정도
- 걸음: 발 뒷꿈치 > 발 중앙 > 발 앞꿈치 순
- 오르막길: 보폭을 조금 줄이고 경사도와 비슷하게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발은 가능하면 평지에서처럼 발 뒷꿈치 부터 앞쪽으로 체중이 이동되도록 합니다.
- 내리막길: 체중으로 인한 부하로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걷습니다. 보폭을 줄이고 착지 할 때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경사가 심할수록 속도를 늦추고 중심을 잘 잡으며 걷습니다.

<“걷기”를 위해 준비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 걷기 전에 약 5분 정도 약간의 땀이 날 정도로 맨손체조를 하면 체온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근육이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상 예방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걷기 후에도 스트레칭으로 정리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 걷기에 편안하고 발에 상처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가벼운 신발
- 신발 밑창은 걷기로 인한 관절의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걷는 장소

-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
- 조깅 트랙, 흙이나 잔디가 있는 곳이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걷는 형태

- 8자형 걸음은 발목과 척추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약간 벌어진 11자형 걸음이 좋습니다.



걷는 시간

- 걷기운동은 속도보다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한데, 하루에 약 45분 이상, 3km내외의 거리를 일주일에 3~4회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에 적응이 되면 점차 빠르게 걷도록 하고, 횟수도 늘려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고령자 중에는 온도에 대한 체온 조절 반응인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여름 낮 시간이나, 너무 온도가 낮은 시간은 피합니다.

② 그 외 생활체육 참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제공하고있는 **생활체육정보센터**를 통해 생활체육관련 정보를 얻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받아보세요! <https://sports.koreanpc.kr>



전화상담

1577-7976(친구체육)

상담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빠른 시일에 답변해드립니다.

[바로가기](#)



방문상담

방문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빠른 시일에 답변해드립니다.

[바로가기](#)

● 서비스 안내



2. 식생활 지침서

장애를 유발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평상 시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식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식품구성자전거는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들을 함유된 영양소가 비슷한 것 끼리 묶어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식품군은 곡류, 고기·생선·계란·콩류, 채소류, 우유·유제품류, 유지·당류이며 6가지 식품군에 권장식사패턴의 섭취 횟수와 분량에 비례하도록 면적을 배분하였습니다.

식품구성자전거는 다양한 식품군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한 비만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먹자

- 여러 가지, 채소, 다양한 제철 과일을 자주 먹고,
- 우유 제품을 매일 먹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하루 1~2잔 이내로 제한하자

- 남자는 하루 2잔
- 여자는 1잔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와 튀긴 음식을 적게 먹자

- 튀기거나 볶은 음식을 적게 먹고,
-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습니다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즐겁게 하자

- 아침을 거르지 않습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 짠 음식을 적게 먹고,
-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사용합니다.



음식을 먹을 만큼 준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자

-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보관하고
- 오래 두지 않습니다



활동량을 늘리고, 알맞게 섭취하자

- 운동은 1회 30분 이상, 1주 2~3회 이상 실천하고
- 단 음식과 단 음료를 제한합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생활을 즐기자.

- 밥과 다양한 반찬을 갖춘 식사로 영양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 건강체중 유지하기

1) 건강체중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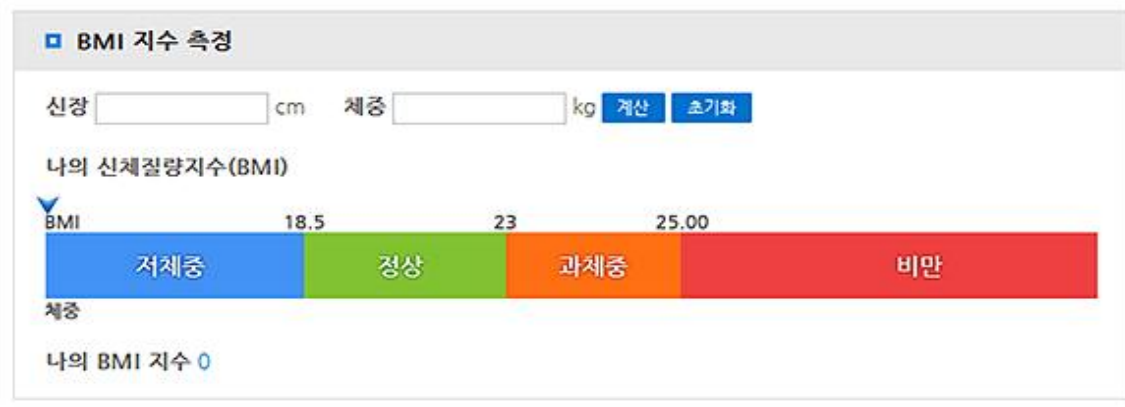
체질량 지수(BMI) 18.5~23이하로 적정체중을 의미하며, 체질량지수는 체중(kg)/신장(m²)으로 계산합니다.

2) BMI 계산하기

체질량지수는 자신의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으로 나눈 값입니다. 체질량지수는 근육량, 유전적 원인, 다른 개인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들이나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체질량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hi.nhis.or.kr/cd/ggpcd001/ggpcd001_m01.do



The image shows a web-based BMI calculation interface. At the top, it says 'BMI 지수 측정'. Below this, there are input fields for '신장' (Height) in cm and '체중' (Weight) in kg, followed by '계산' (Calculate) and '초기화' (Reset) buttons. Underneath, it says '나의 신체질량지수(BMI)'. A horizontal bar chart shows the BMI scale with four color-coded regions: '저체중' (Underweight) in blue (below 18.5), '정상' (Normal) in green (18.5 to 23), '과체중' (Overweight) in orange (23 to 25.00), and '비만' (Obese) in red (above 25.00). The current BMI value is shown as '나의 BMI 지수 0'.

3) 건강체중 유지의 중요성/필요성

우리 몸은 비대해지고 지방세포가 늘어날수록 산소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는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건강 체중을 잘 유지할 경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암 등)과 장애와 관련된 질환(육창, 요로감염증, 요로결석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체중 관리로 자신감이 상승하여 불안감, 외로움, 스트레스가 감소 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줄이기

1) 스트레스란?

여러 가지 외부의 사건, 내면의 갈등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지장을 주는 모든 형태의 방해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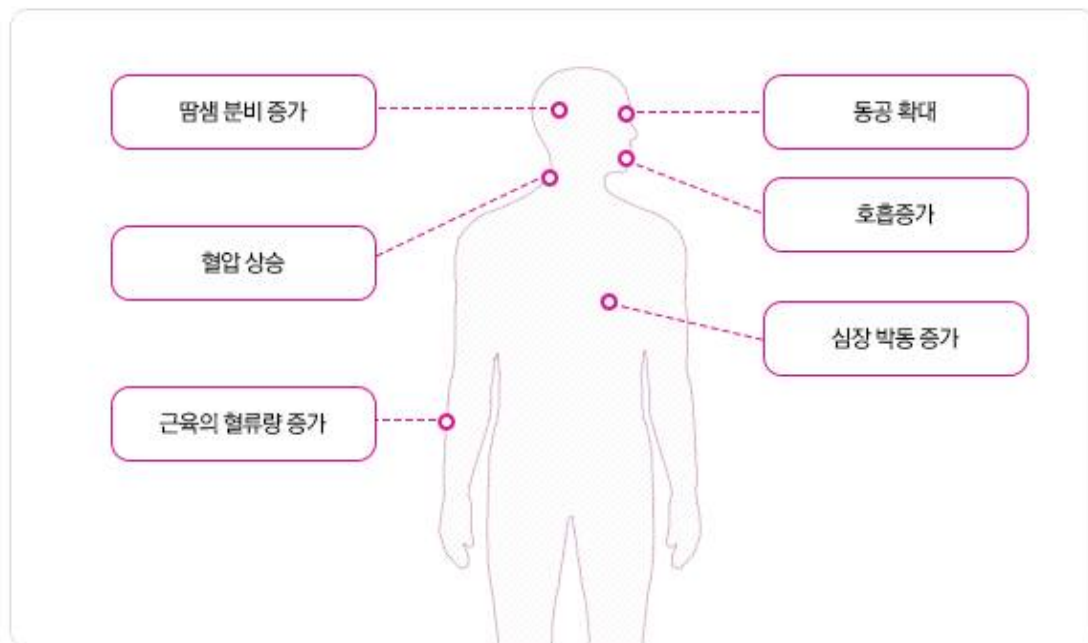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들을 경험하는 것을 좋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지장을 주는 질병이나 과중한 업무와 같은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들을 나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출처 : 소중한 당신을 위한 마음건강 안내서 마음두드림.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2) 스트레스의 신체적 영향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다양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눈이나 귀 같은 감각 기관들은 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뇌에서 그 정보들이 스트레스로 해석될 경우, 뇌는 몸의 여러 장기들과 호르몬 분비샘을 자극하여 신체에 복합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경계를 통해 신체의 기관들에 신호가 전달되면서 첫 번째 스트레스 반응들이 시작됩니다.

이 반응에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 변화들이 동반됩니다.



출처 : 소중한 당신을 위한 마음건강 안내서 마음두드림.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3) 스트레스 관리지침

- 규칙적인 생활습관
- 적극적/문제해결형 대응
- 이완요법(복식호흡,근육이완법,바이오 피드백,명상)
- 시간관리

4) 스트레스 음식으로 다스리기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5. 장애인 건강 및 재활정보 제공 사이트 소개

- ① 장애인복지제도 <http://www.bokjiro.go.kr/>

장애인 복지제도

더보기 +

장애인 등록, 수당 지급,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의 각종 복지 제도 안내, 관련 법령 열람, 행정 절차시 필요한서식과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② 장애인 뉴스 / 라디오 / TV

*뉴스

www.ablenews.co.kr

<http://www.welfarenews.net/>

*라디오/ TV

<http://www.iwb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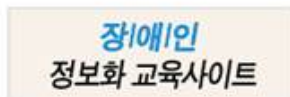


③ 장애인 교육 및 취업

<장애인 교육>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입니다. 각종 교과서와 학습서는 물론 EBS 수능 강의 교재를 시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매체로 신속히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 장애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전국 150여 곳에서의 집합교육,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교육, 컴퓨터 문제에 대한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중·고 교육과정 지도에 필요한 자료, 학급경영 관련 자료, 국어, 수학, 과학 등의 사이버 재택 교육, 학습지도자료, 학습 훈련 교육용 프로그램, 특수교육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 국립특수교육원, 도움나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취업>



업종별 지역별 일자리 정보, 전공계열별 인재정보, 각종 교육정보, 취업 가이드와 장애인 취업 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종별 채용정보, 직종별 자치구별 인재정보 등을 제공하며, 직업 훈련과 창업관련 정보, 취업 가이드와 성공 사례 등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

④ 재활의학정보 <http://www.karm.or.kr/>

재활의학정보

더보기 +

뇌졸중 및 척수손상 환자, 각종 통증으로 인해 보행 및 일상 생활 동작에 지장을 받는 모든 환자들께 도움이 되는 재활의학 치료분야별 정보를 소개합니다.

전국재활병원 안내

대한재활의학회에 등록된 국내 재활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자기옹호 이해하기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16년 10월 31일~2016년 11월 04일
장 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자기옹호 이해하기

‘장애가 아닌 사람이 먼저(Not disability, people first)’는 발달장애인 자기옹호의 주요한 원칙이자 가치이며 신념이다.

1. 자기옹호의 배경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는 1960년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출발하여 유럽 전반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캐나다, 미국 등 북미로 전파되었으며 1970년대 발달장애인의 대표적인 자기옹호집단인 피플퍼스트(People First)로 성장하였다. 피플퍼스트는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과 함께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세상의 편견을 깨트렸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탈시설과 1980년대의 자립생활운동 등에 힘입어 장애인의 자기옹호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더불어 성장한 자기옹호집단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 자기옹호란?

자기옹호(Self-advocacy)는 자신의 권리가 전문가, 가족, 자원봉사자 등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혼자 힘으로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 혹은 행동하는 것이며, 자신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으로서 권리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Williams and Shoultz, 1982; Goodley, 2000).

3. 자기옹호의 원칙

자기옹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발달장애인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 말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발달장애 자기옹호집단인 자기옹호자동맹(SABE)은 미국 50개 주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오고 있다. 비영리 옹호기관인 자기옹호자동맹(SABE)이 말하는 ‘공평한 것(Fair)과 공평하지 않은 것(Not Fair)’은 자기옹호와 자기옹호를 빼앗는 상황을 잘 제시하고 있다.

공평한 것(Fair)	공평하지 않은 것(Not Fair)
-책임감 갖기 -친구,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동등하게 대우받기 -결혼하기 -최하위 최저임금 거부 -선거, 취업 등 사회참여 가능하기	-대기자 명단 -어디서 일하게 될지를 지시받기 -몇시에 침대에 가야하는지 지시받기 -누구랑 함께 놀아야하는지 지시받기 -괴롭힘, 왕따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삭감할 때

자료:SABE

4. 자기옹호기술

1) 자기옹호기술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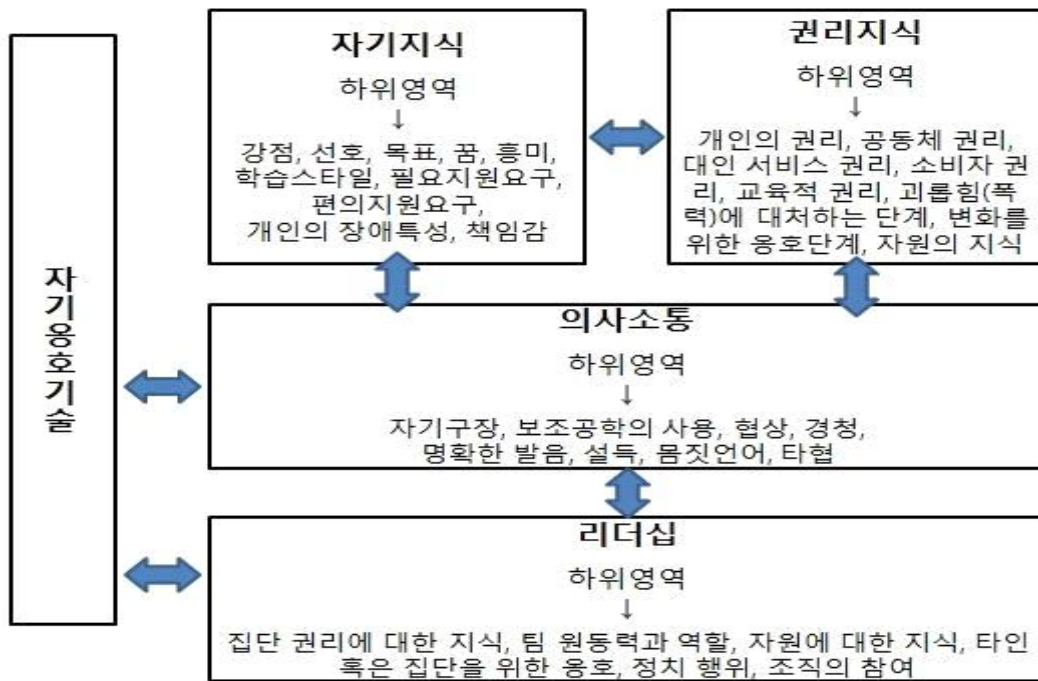
최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합의 확대로 학교, 직장, 혹은 지역사회 등에서 일반 학생과 통합되어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지고 이에 따라 자기를 옹호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고,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옹호기술 습득과 향상이 모든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기옹호기술(self-advocacyskill)이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상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구, 필요, 신념, 권리 등을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옹호기술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자기옹호기술의 구성요소

Test와 그의 동료들(2005)은 자기옹호의 4가지 구성요소로 **자기지식(Knowledge of Self)**, **권리지식(Knowledge of Right)**, **의사소통(Communication)**, **리더십(Leadership)**을 제시하였다. 해당 하위요소들이 효과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자기옹호훈련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4가지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자기옹호훈련이 발현될 수 있다. 자기옹호훈련의 구성요소들 중 자기지식과 권리지식은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 자기옹호기술의 4가지 구성요소 >

5. 자기옹호기술 실천방법

1) 주장하기

- 주장하기 : 자신을 주장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변호할 때 당당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자신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장하기 행동의 내용은 ‘권리에 대한 나의 표현’과 ‘자세한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구성되며 요구, 정서, 의견 등에 대한 언어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 거부 - “미안하지만, 나는 이번 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 행동변화에 관련된 요구 - “나는 당신이 ○○○○○을 했으면 좋겠어요.”

*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표현 - “나는 ○○○○○에 반대하는데요.”

- 주장하기 훈련 : 주장하기 행동을 지속적으로 훈련함에 따라 자기옹호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 주장하기 행동을 위해 필요한 훈련은 아래 표와 같다. 특히, 권리에 대한 표현은 주장하기 훈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주장하기 행동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주장이 될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반면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옹호하거나 주장하고 싶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한다.

훈련영역	내용
권리에 대한 표현	* 권리를 확인하고 설명하기 * 관련된 책임들을 확인하고 설명하기 *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사이의 갈등을 구별하기 * 개인적 신념과 가치를 확인하고 설명하기 * 주장, 비주장, 공격행동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설명하기 * 필요, 요구, 의견, 사실에 대한 진술을 구분하기 * 주장과 관련된 본래의 위험요소를 이해하기
언어적 주장하기 훈련	*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권리에 대한 진술 표현하기 * 1인칭으로 권리에 대한 진술 전달하기 * 의견과 신념을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기 * 적절한 어조를 이용하기 * 억양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적절한 시기를 찾기 * 공격성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기
비언어적 주장하기 훈련	* 신체적 언어를 이용하기 * 몸짓과 얼굴표정을 적절히 이용하기 * 눈맞춤을 적절히 이용하기 * 적절한 태도와 자세를 이용하기
자세한 경황 표현	*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의견, 경험들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을 의사소통하기 * 타협, 협상, 설득하기 기술을 이용하기 * 자세한 정황 표현에 맞는 음성 특징 조정하기
대화훈련	* 경청하는 기술 연습하기

2) 스크립트

스크립트란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인과적이고 순서적으로 구조화된 지식 구조’이다. 스크립트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발달장애인은 스크립트를 활용하면서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은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해야하는 자기옹호기술을 배우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어 익숙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인지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기옹호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들은 기질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단기 기억, 주의집중 및 학습과정 등의 인지구조의 결함을 보인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이고 명시적인 지도와 과제 분석적 접근을 통한 단계별 지도가 효과적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스크립트를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적 기술 지도는 선행 연구들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회 기	구성 요소	하위 영역	주제	지도내용
1	자기 지식	감정 인식	내 마음 속 기쁨과 슬픔	상황에 맞게 기쁨과 슬픔 스크립트 만들고 표현하기
2			내 마음 속 화와 불안	상황에 맞게 화·불안 감정 스크립트 만들고 표현하기
3		선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스크립트 만들고 소개하기
4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스크립트 만들고 소개하기
5	권리 지식	요청 하기	친구에게 요청하기	상황에 따라 친구나 직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스크립트 만들고 연습하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나를 지원해줄 사람 부르기 →지원 요청하는 말 해보기)
6			직원에게 요청하기	
7		주장 하기	친구에게 내 생각 말하기	친구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스크립트 만들고 연습하기 (내 생각을 말해야 하는 상황→내 생각 정리하기 →내 생각 표현하기)
8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기	

< 스크립트를 이용한 자기옹호 교수 프로그램 구성 내용 예시 >

3) 자기옹호 역할극

자기옹호 상황을 7가지 역할극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①신체적 공격을 당하는 상황, ②언어적 공격 및 유인을 당하는 상황, ③성추행을 당하는 상황, ④자기 물건(돈, 귀중품 등)을 빼앗기는 상황, ⑤소비자 권리를 위협 받은 상황, ⑥의심 및 오해를 받는 상황, ⑦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상황으로 나눈다. 자기옹호 역할극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환경에 맞는 역할극 상황을 제시하여 자기옹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 영역	주제	역할극 상황	각 상황의 자기옹호 핵심훈련
① 신체적 공격을 당하는 상황	때리지 마!	친구가 놀리면서 때리는 상황	* 언어적 훈련: 때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기 * 행동적 훈련: 말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기, 상대방의 팔을 붙잡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방어하기
	항상 벌칙 받는 나	게임을 하자고 한 이후에 벌칙으로 세계 혹은 많이 때리는 상황	* 언어적 훈련: 그만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기 * 행동적 훈련: 말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기,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내가 다친 이유는?	친구가 나를 고의로 다치게 하는 상황	* 언어적 훈련: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기, 불쾌한 감정 말하기 * 행동적 훈련: 말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기, 상처 났을 경우 병원가기
	친구들이 날 세계 때렸어요	친구가 나를 구타하는 상황	* 언어적 훈련: (안전을 위해) 상대의 말에 수긍하기, 119, 112, 부모님에게 전화하기 * 행동적 훈련: 틈을 타서 도망가기, 주변사람에게 지원요청하기, 근처 병원가기
② 언어적 공격 및 유인을 당하는 상황	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친구가 나에게 욕을 따라하라고 시키는 상황	* 언어적 훈련: 단호하게 거절하기 * 행동적 훈련: 거절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기

< 7가지 역할극 상황과 자기옹호 핵심훈련 예시 - ①, ②를 중심으로 >

장애인 학대신고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6.06.02.(목) 19:00~20:30
장 소	보람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학대 신고

1. 장애인 학대 신고

Q1. 장애인 학대 신고는 누가 하나요?

- A. 장애인 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직군의 종사자는 학대 상황을 발견했을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신고의무자는 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 A. 네!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 4 제2항). 신고의무자임에도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신고의무자의 신분은 보장되나요?

- A. 네! 장애인복지법은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 4 제3항).

Q4.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면 되나요?

- A.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2017년 설립예정), 수사기관(112),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1577-5364)

Q5. 신고 시 주의사항은?

- A.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며,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는 등 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과 진술 오염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

■ 남원 생활시설 신체적 폭력 사례

남원 장애인 상습폭행 사건이 주는 시사점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전문가·치료사 현장 배치 필요

아이뉴스24, 기사작성일 : 2016-05-25 14:20:01

공작크게



▲남원 '명희의 집'에서 생활재활교사인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발자기로 위협하는 장면. ⓒ 아이뉴스24

관련기사

- 장애인 상습폭행 생활재활교사 무대기 적발

최근 남원시 소재 지적장애인 시설 명희의 집 인권침해가 보도되면서 한국장애통을 비롯한 장애계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와 대책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나도 이번 사건과 같이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모습을 뉴스로 접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사회복지사의 인권, 발달장애 전문가나 치료사들을 복지관, 시설 등의 현장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자기옹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관, 시설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이용자 중심의 자기옹호 지원방향에 혼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제공자 중심의 지원이 행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등 이용자 중심의 자기옹호 지원 사례를 복지관, 시설 등 민간차원에서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옹호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기에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에서 얻은 노하우를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꾸준히 하지 않는 한 남원만 도가니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한번 봐야겠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인권 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사회복지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선적·자발적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제5조는 사회복지사 인권에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14년 10월경, 사회복지사의 직무 상 권리보장과 적정 보수수준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권고는 아직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회복지사 하면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지, '사회복지사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권리의 주체이며 엄연한 직업이다'고 인식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사회복지사는 쉽게 지치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어 자신의 직업에서 자긍심을 갖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어렵게 되고, 발달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여지는 더욱 커진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사업법 5조 개정 등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엄연한 직업으로 존중받는 것이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폭행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회원에서 영구 제명하며, 법원에서 발달장애의 특성과 발달장애인과 시설 내 직원과의 위계관계를 고려, 상식적이고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일반학급 내 정신적·정서적 학대 사례



에이블뉴스, 장애인뉴스

5월 24일 오전 08:40

소식발기

장애자녀 집단따돌림 법적 구제, 부모의 좌절

"인권위 결정이 법원 판결에 치명적일 수도 있어"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친구들과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 친구들과 놀림에 대하여 싸우게 되면 나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되었고, 보복을 위해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는 나쁜 아이가 되었다.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는 경우, 내가 듣는 한 단어만으로도 나는 피가 거꾸로 솟고,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었지만, 누구도 나의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으로 지적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의 미래 희망이 거지였다. 시각장애로 인하여 나는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어느 여성도 나와 가족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매일 세상을 한탄하며 구걸을 하여 눈물이 섞인 찬밥을 먹는 상상을 했었다.

나는 며칠 전 여주에 사는 오필승(가명)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 오필승은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 친구들과로부터 심한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나는 당사자로서는 눈이 뒤집히고,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며, 감정을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내 어린 시절을 상기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태연하고 이성적이며 그 정도는 감수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 염전 노예 사건

전남 신안군 일대의 염전에서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폭행과 학대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 사실은 지역의 뿌리깊은 관행이었으나 누구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한 장애인이 어머니에게 ‘살려 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일제 수색으로 수백 명의 장애인 피해자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노숙인이나 무연고자로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직업소개소에 속아 염전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피해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섬이라는 환경 상 탈출이 쉽지 않았고, 주민들이 탈출하려는 인부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는 바람에 번번이 다시 잡혀가 구타를 당하곤 했다.

■ 본관 성인 발달장애인 이용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3. 학대받지 않을 장애인의 권리

■ 인권

성별, 인종,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 헌법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의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 1948년 6월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 의해 선언문이 완성되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 연합 총회에서 찬성한 나라는 50개국, 8개국이 기

권하여 채택되었다. 선포될 당시 58개 전체 회원국이 각자 처해 있는 서로 다른 경제 발전 수준과 다양한 이데올로기, 정치 체제, 종교•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세계의 주요 법체계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전통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제1조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3조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로 예측된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24조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우리에게서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 장애인권리협약(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장애인권리협약은 71개국의 당사국에 의해 2006년 12월 13일 채택되어 2008년 5월 3일 발효된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로,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2001년 53차 UN 총회에서 멕시코의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2002년에 총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까지 총 8차에 걸쳐 열린 회의와 협상을 통하여 완성되어 마침내 2006년 12월 13일에 유엔 총회에서 선택의정서와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쳤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증진, 보호,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당사국을 위한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을 장애에 적용하여, 일반적인 인권의 내용을 장애인과 관련하여 구체화하고 현존하는 장애관련 국제법들을 명료하게 하고 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① 내용

1.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2. 차별 금지
3.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
4. 인간의 다양성,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5. 기회의 평등
6. 접근성
7. 남녀 평등
8. 장애아동의 발전 역량에 대한 존중 및 장애아동의 정체성 유지권리의 존중

② 비준국가의 일반적 의무

- 필요한 경우 입법 및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 관습, 또는 관행을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 모든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를 포함시킨다.
- UN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관행을 억제한다.
- 모든 개인, 단체 또는 사기업에 의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학대 관련 조항

제16조 모든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학대의 이해

- 장애인 학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
- 장애인학대의 특성
 - ①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가정 내 장애인 시설 내, 직장,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 ②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복지서비스 제공자,

직장 동료, 이웃 등 장애인과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의 가장 좋은 옹호자이기도 합니다.

- ③ 학대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학대임에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방임에 놓은 장애인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 ④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은 피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⑤ 학대를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

- ①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한다.
 - 장애인은 단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동등한 인간’입니다.
- ② 장애인 인권교육/학대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돌아보고 높입니다.

※ 장애인비하 표현사용하지 않기 등 언어적 노력이 요구됨.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의 개념이 ICIDH 방식(손상, 장애, 핸디캡에 관한 국제 분류)에서 상황적 장애까지 고려한 ICIDH-2를 거쳐 상황적 요인과 역동성을 보다 강조한 ICF 방식으로 변화함.

- ③ 당사자 권리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힘을 배양한다.
 - 기분 좋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법입니다.
- ④ 학대의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다.
 - 학대 신고 : 수사기관,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2017년 설립 예정)
 - 상담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5364)
- ⑤ 장애를 이유로 한 따돌림, 비하발언 등 정서적 학대를 유념한다.
 - 친구들 사이의 일이 아닌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 ⑥ 이용자 간 학대에 유념한다.
 -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대의 피해자가 학습된 학대로 인하여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그마 힐링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6.11.07(목) 19:00~20:30
장 소	별관 3층 그루터기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6년 2차 부모교육 보고서

1. 필요성

성인기 장애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성인기의 발달과업과 장애로 인한 현실적인 제한, 성인으로서의 자녀를 인정하기 어려운 보호자 자신의 선입견 사이에서 경험과 정보, 지식의 부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만1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적응훈련반 보호자들과의 면담 및 부모회의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고충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내용이며, 자녀의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누적된 어려움이다. 장애자녀를 긴 시간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보호자들의 체념, 포기,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자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2. 목 적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유 시간을 마련한다.

3. 목 표

- 1) 만다라힐링 활동을 실시한다.
- 2)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느낌을 이끌어 낸다.

4. 일 시 : 2016년 11월 03일(월) 19:00~21:00

5. 장 소 : 별관 3층 그루터기 상담실

6. 내 용 :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미술심리지원

7. 참 석 자 : 직업지원팀 프로그램 이용인 보호자 6명

8. 강 사 : 신상희(가족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9. 연계기관 : (사)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

10.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8:30~19:00	* 셋팅 / 강사 응대	
19:00~21:00	* 부모교육 진행	
21:00~21:30	* 뒷정리	

11. 준비물

구 분	내 용
보유품	빔프로젝터, 노트북, 강사용 물
제작	참석자 명단
강사	워크북, 색연필

12. 결산

항목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강사비 (2급강사)	최초 1시간 13만 원 + 초과 매시간 8만 원	210,000	운영규정
합계		210,000	

13. 평가

1) 목적·목표 달성 평가

① 만다라힐링 활동을 실시한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만다라힐링 활동을 실시하였음. 본인의 마음에 드는 워크북, 마음에 드는 그림, 마음에 드는 색연필 색상을 선택하는 단순한 활동임에도 ‘선택’과 ‘채색’에 전반적으로 주저하는 모습이었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금번 참여자의 경우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강사가 촉진하였음. 채색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는 ‘만다라’ 활동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1차 완성 후 강사의 개별적인 개입, 촉진에 따라 추가적인 채색활동을 실시할 수 있었음.

②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느낌을 이끌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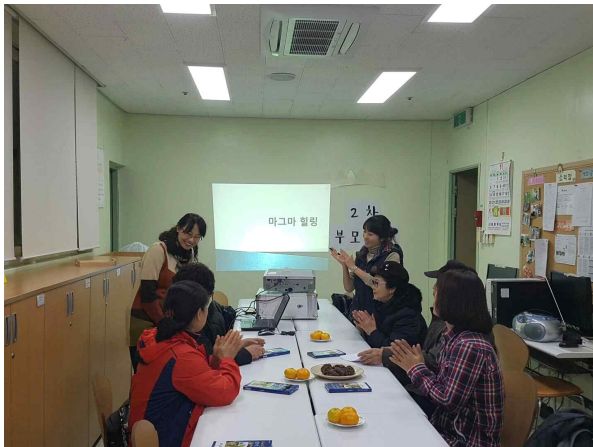
아주 단순한 활동임에도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그림과 색을 선택하고 칠하는 것을 어려워함. 감정, 생각 등 자기표현에 서툰 모습이었음. 채색한 후 강사의 촉진에 눈물을 보이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조언에 따라 추가적으로 채색한 후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2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초반보다 선택과 채색에서 적극적인 모습이 관찰됨. 이를 통해 보호자들의 새로운 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소 스트레스나 불안도가 높다고 파악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진행해도 좋을 것임.

2) 준비 및 진행

- ① 부모교육 주제에 대한 홍보를 미리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석을 유도하면 좋을 듯함.
- ② 강사비를 지출하는 강의의 경우 참석자들을 다수 모아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음.
- ③ 1회기 강의의 경우 주제나 강사의 역량과 무관하게 강사와 참여자(보호자)들의 Rapport가 형성되지 않아 질문을 하거나 마음 속의 생각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이는 부모교육의 주제나 강사의 역량과 무관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일정한 회기를 반복하여 강사와 참여자들의 Rapport형성을 기반으로 효과를 끌어내거나 담당자가 주관하는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음.

14. 활동 사진

1) 프로그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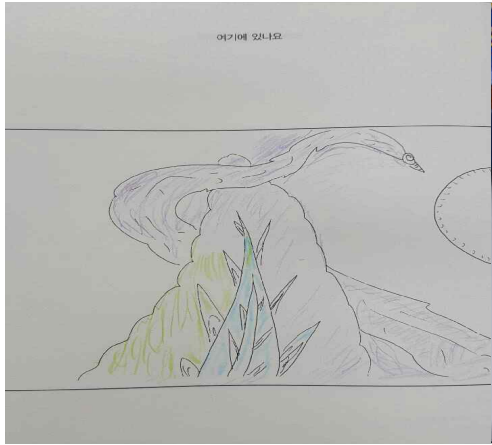


※ unoffici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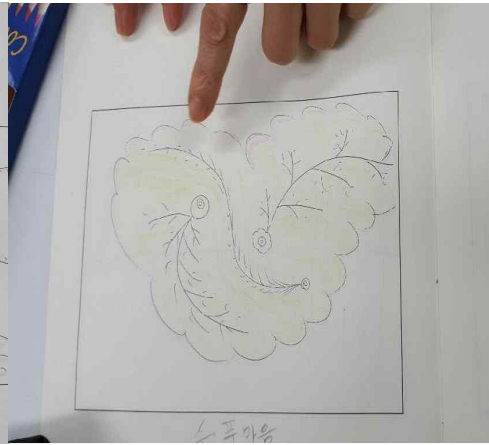
관국장님은 사람 수가 적은 것에 대해 비용 대비 비효율성 언급, 무료강사 초빙, 일정 인원 이상일 때 진행 혹은 취소

꼭 다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회의감, 주제에 따라 소그룹 진행도 필요하다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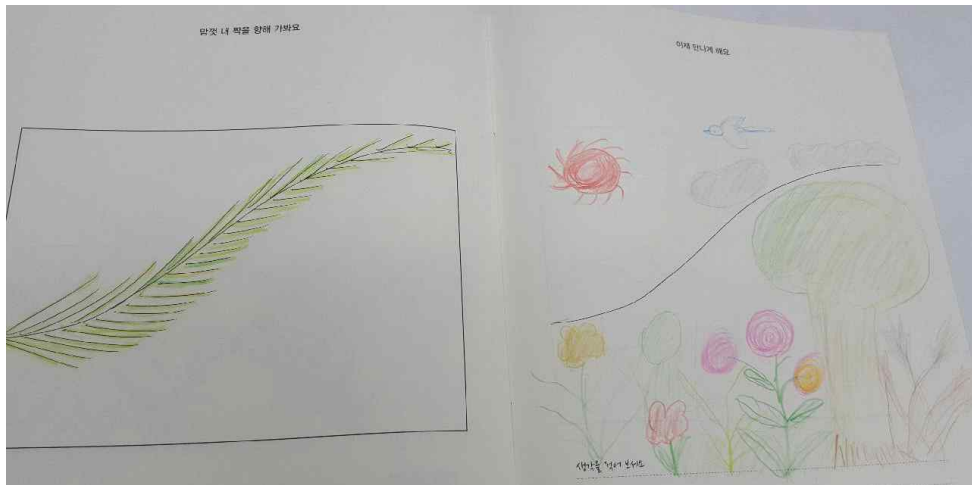
2) 참여자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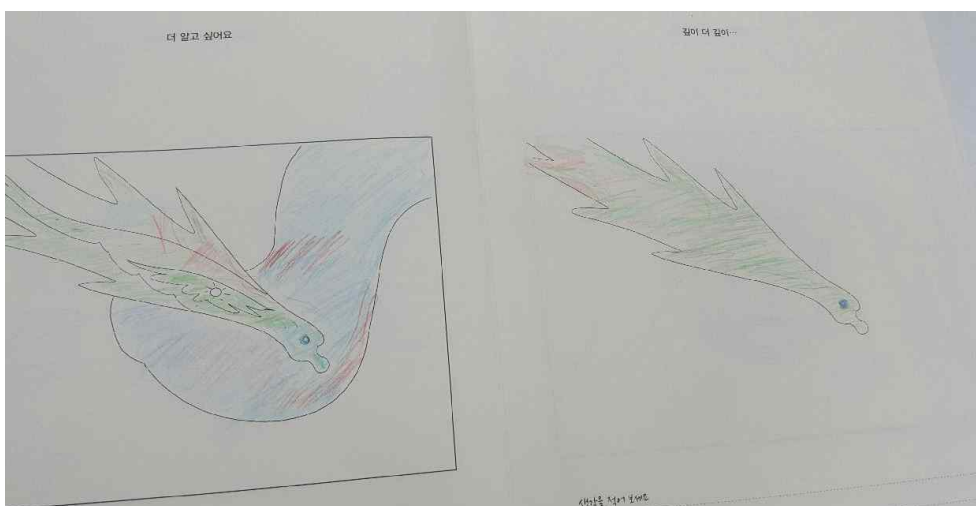
진은혜 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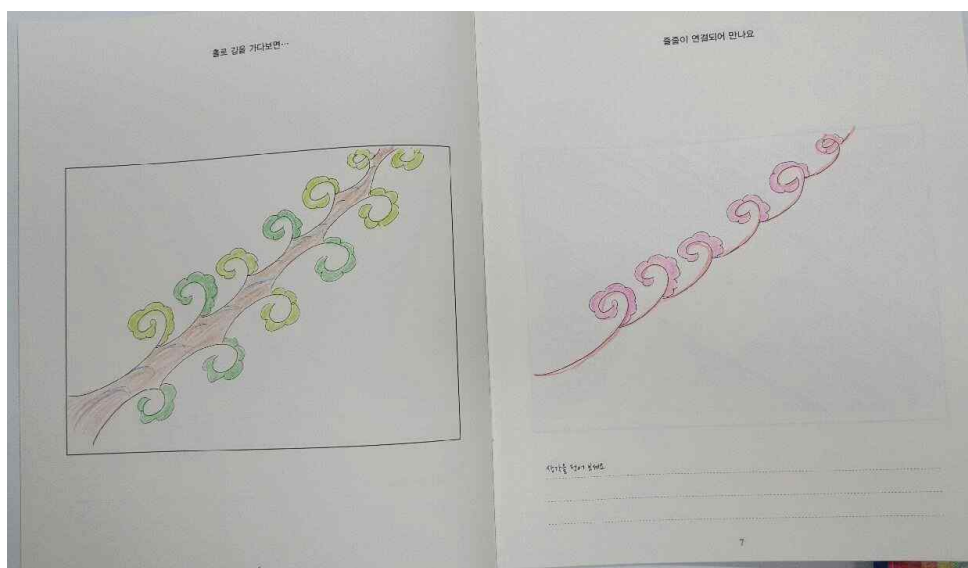
최동식 母(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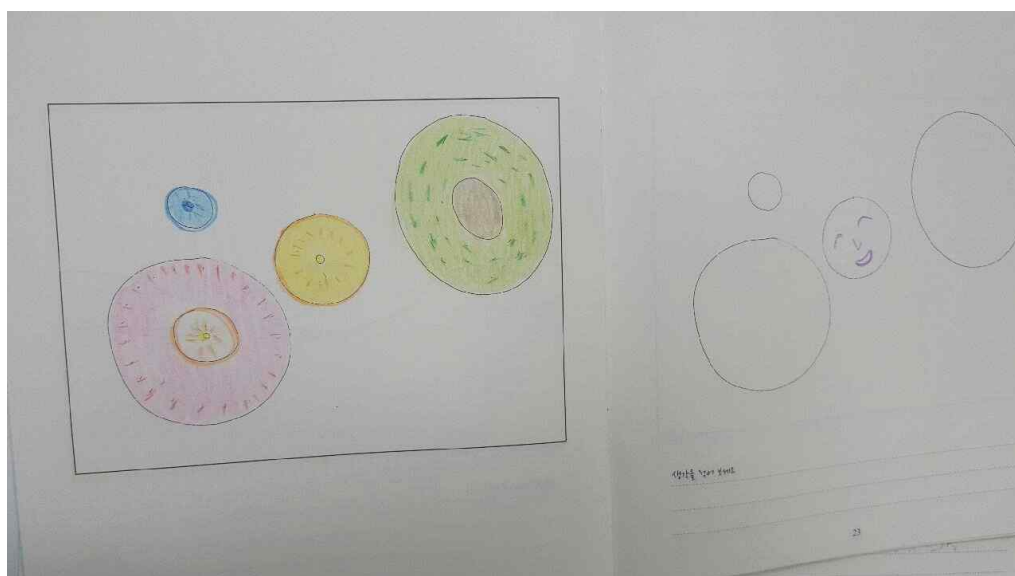
최남주 母



진은혜 조모(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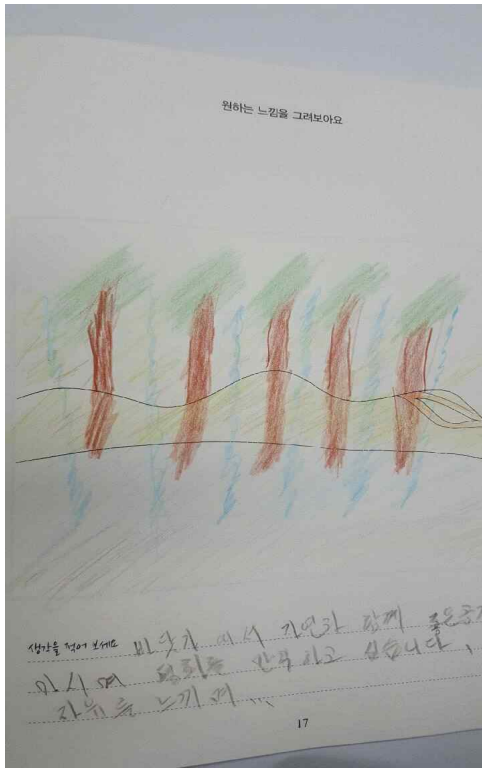
민상훈 母(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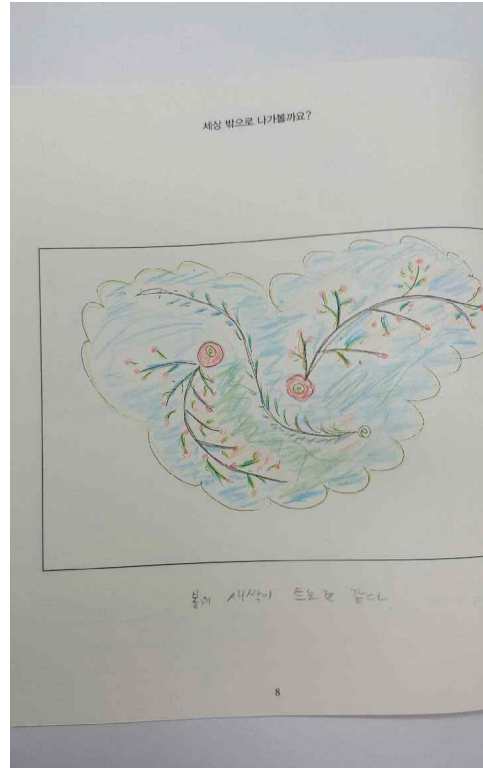
민상훈 母(2차)



진은혜 조모(2차)



임선영 母



최동식 母(2차)

2016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6년 1월 14일 (목) 저녁 7시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열린 일터

I. 2016년 열린일터 연간 사업 일정

날 짜		내 용
1월	11일	시무식
2월	—	동아리활동 시작(2주, 4주)
3월	11일~12일	직원연수 (11일 휴무)
	22일	1차 운영위원회의
4월	1일	1차 등산활동
	15	복지관 성인 이용인 연합체육대회
	22일	데이캠프
5월	5일	비루고개축제
	27	가정의달 행사
6월	10일	2차 등산활동
	16일	2차 운영위원회의
7월	—	—
8월	1일~5일	하계휴가(예정)
9월	9일	3차 등산활동
	20일	3차 운영위원회의
	23일	휠체어마라톤대회
10월	7일	4차 등산활동
	20일~21일	가을여행
	10월 중	소방종합훈련
11월	29일	4차 운영위원회의
12월	21일	남동송년예술제
	30일	종무식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I. 2016년 일일 시간표

오전	09시 00분 ~ 09시 30분	조회 / 작업 준비
	09시 30분 ~ 10시 3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0시 30분 ~ 10시 50분	쉬는시간
	10시 50분 ~ 11시 50분	프로그램 및 작업
오후	11시 50분 ~ 13시 20분	점심시간 (스트레칭)
	13시 20분 ~ 14시 2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4시 20분 ~ 14시 40분	쉬는 시간
	14시 40분 ~ 15시 4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5시 40분 ~ 16시 00분	쉬는 시간
	16시 00분 ~ 17시 0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7시 00분 ~ 17시 30분	청소 및 종례

III. 2016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김형범, 김상준, 김영희, 강웅혁 김훈범, 이해민, 남빛, 임선영, 한운철, 이재상 (10명)	조상환, 홍미리, 김동하, 강병철, 조준희, 양세정, 하은미, 박찬혁, 황정하, 조국태, 황지선, 김민아, 고혜민, 남아랑, 김경환, 노가영, 이소영, 이민지, 이혁배, 이형석, 장정희 (21명)

IV. 2016년 프로그램 참여 이용인 명단

프로그램명		이용인 명단
성교육	근로자	근로자 전체
	훈련생	훈련생 전체
사회기술 훈련	1반	황정하, 양세정, 이형석, 조상환, 남아랑, 홍미리, 하은미
	2반	이혁배, 김동하, 김경환, 장정희, 김민아, 노가영, 고혜민
	3반	박찬혁, 조국태, 강병철, 조준희, 이소영, 황지선, 이민지
운동	댄스교실	고혜민, 김경환, 노가영, 이소영, 홍미리
컴퓨터 교육		황정하, 고혜민, 남아랑, 김경환, 노가영
공예훈련		남아랑, 조상환, 이소영, 이민지, 고혜민, 노가영, 김경환, 장정희, 이형석, 조준희, 박찬혁, 김동하, 김민아
자판기 관리	근로자	이재상, 이해민
	훈련생	조준희, 홍미리
미술 치료	근로자	남빛, 임선영, 강웅혁
	훈련생	남아랑, 이민지, 황지선
근로자 기본교육		근로자 전체
지역사회적응훈련 인권교육, 안전교육 건강교육		근로자 및 훈련생 전체
동아리활동		신청자

V. 보호고용 운영지침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 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 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 (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인들 중 6개월 이상 이용하였으며 ‘근로자 선정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10명을 선정한다.

제6조 (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제7조 (근로 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인과 시설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 (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 4 장 복 무

제9조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일시)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한다.[개정 2015.1.1]
3.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1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1.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2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2조의 1 (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3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제14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

제15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
3. 배우자 출산 :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시행 2013.2.2) [개정 2013.1.1][개정 2014.1.1]
4.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6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6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17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8조 (임금지급 기준 및 방법)

1. 근로자는 월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5.1.1]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4. 근로자가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신설 2014.1.1]

제 6 장 종 결

제19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 종결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근로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

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3.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써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이용인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4)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15.1.1]

5)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4. 계약종결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 되지 않았을 때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0조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1조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부모회의

제22조 (부모회의)[신설 2013.1.1]

1. 보호고용 근로자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VI.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의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차 보호고용 등으로 전이되어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2.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훈련생 정의)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진단 및 재활계획회의 결과 신규 이용이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개정 2016.1.1]
2.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작업활동프로그램 대상으로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제 2 장 서비스 과정

제5조 (훈련생 선정 및 과정)

1. 훈련생 선정을 위한 이용인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결원 시 접수된 순서대로 진단한다.

2. 초기면접과 직업평가 후 재활계획회의를 실시하여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평가 기간은 일주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

3. 타기관의 동일한 진단(1년 이내)을 통해 의뢰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을 결정한다.[개정 2016.1.1]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1. 이용기간이 만료하여 이미 퇴소한 자
2.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소자 중 이용기간이 5년 초과된 자
3.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소자 중 3년 훈련 후 보호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한 자 단, 3년의 훈련기간 연장자는 훈련을 지속하고, 그 후 보호고용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7조 (훈련계약)

훈련생으로 입소가 확정된 훈련생과 시설장은 훈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서 훈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년 중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제8조 (구비서류) 열린일터 훈련생으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용인의 권리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복지카드 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제9조 (훈련기간)

3년간 훈련생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훈련 후 평가를 통해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내용 및 훈련비)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장차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

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

- 1)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2)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3)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4)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5) 통근훈련 : 지역사회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6)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7)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2. 훈련비

- 1) 매월 정액의 훈련비는 없으나, 훈련 내용에 따라 실비를 납부할 수 있다.
- 2) 중식비는 매월 5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련수당 지급)

1. 훈련생은 월1회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훈련수당은 훈련계약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90% 미만 출근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1]
3. 훈련생이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훈련수당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신설 2014.1.1]

제 3 장 복 무

제12조 (훈련생의 책임)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훈련생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란,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훈련일 및 훈련시간)

1. 훈련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한다.[개정 2015.1.1]
3. 휴게시간은 훈련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4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훈련생이 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2. 조퇴라 함은 훈련생이 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1.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6.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기관 이용을 위한 현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현장평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종결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현장평가 기간은 회당 최대 2주로 하고, 3회까지 인정한다.[신설 2015.1.1]]

제15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5조의 1 (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6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 직원교육으로 인해 훈련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5.1.1]

제17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

제18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
3. 배우자 출산 :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시행 2013.2.2)[개정 2013.1.1][개정 2014.1.1]
4.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9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6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20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21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 훈련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기간 만료

훈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강제 종결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4.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훈련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써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훈련생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4)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15.1.1]

5)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제22조 (훈련개시, 종결, 통보)

훈련 담당자는 훈련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훈련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대기자

제23조 (대기자)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가 유예된 대상을 '대기자'로 칭한다.

1. 현 서비스 대상자가 정원에 달했을 때

2. 특수학교 및 학급에 재학 중일 경우 (단, 고3에 한해 대기할 수 있다.)

3. 본 시설 이용 중 특별한 사유(이용인 및 보호자의 입원 혹은 수술, 보호자의 출산 등)에 의해 2개월 이상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종결을 하고 우선 대기(1순위)를 신청 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훈련생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부모회의

제25조 (부모회의)[신설 2013.1.1]

1.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발달장애인 신탁의 이해와 활용



팀 명	열린일터, 직업지원팀
일 시	2016.03.03.(목) 19:00~20:30
장 소	별관 2층 열린일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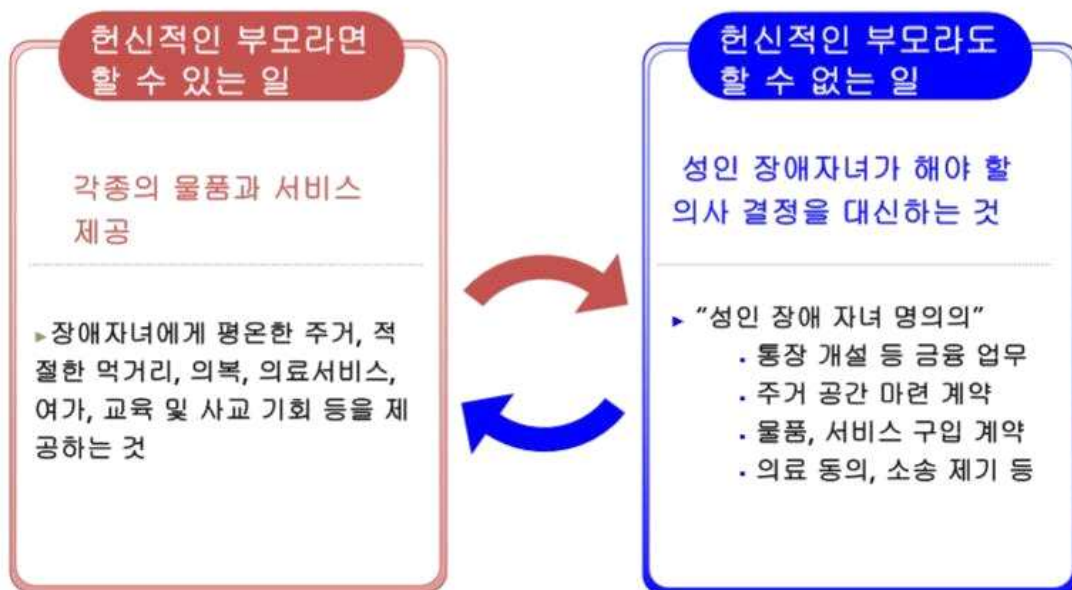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신탁의 이해와 활용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전창훈 변호사

1. 성년후견제란?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견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제도

2. 후견인의 필요성



사례 1



발달장애인 부모, 만 65세

- 지적장애 3급 자녀
- 자녀 명의의 금융자산 5000만원
- 삼촌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

- ✓ 횡령, 배임 위험
- ✓ 피해구제 곤란
- ✓수급권자 지위 유지 어려움

사례 2



발달장애인 김달수, 만45세

-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판단능력 저하
- 식사, 의복착용 등 간단한 일상생활에 대아여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
- 보험회사는 적절안 손해배상을 아끼 않고 있음

- ✓ 특정후견인 선임
: 소송절차 지원, 변호사 선임계약
- ✓ 신탁계약 체결

사례 3



발달장애인 이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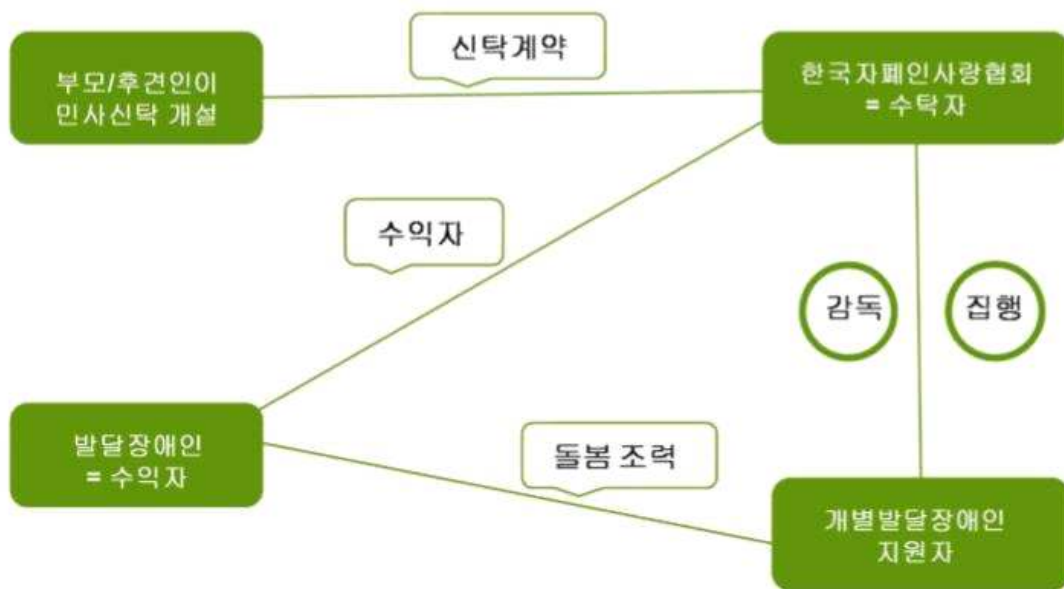
- 간단한 노동, 일상생활상의 사무 처리 가능
- 금전에 대한 개념이 미약
- 상속받은 부동산/금융자산이 있음
- 이웃주민 C씨
: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
: 수급비 동장관리, 횡령

1. 특정후견인 선임, 피해구제
2. 개인별 증장기계익 수립
3. 신탁계약
: 체결시 법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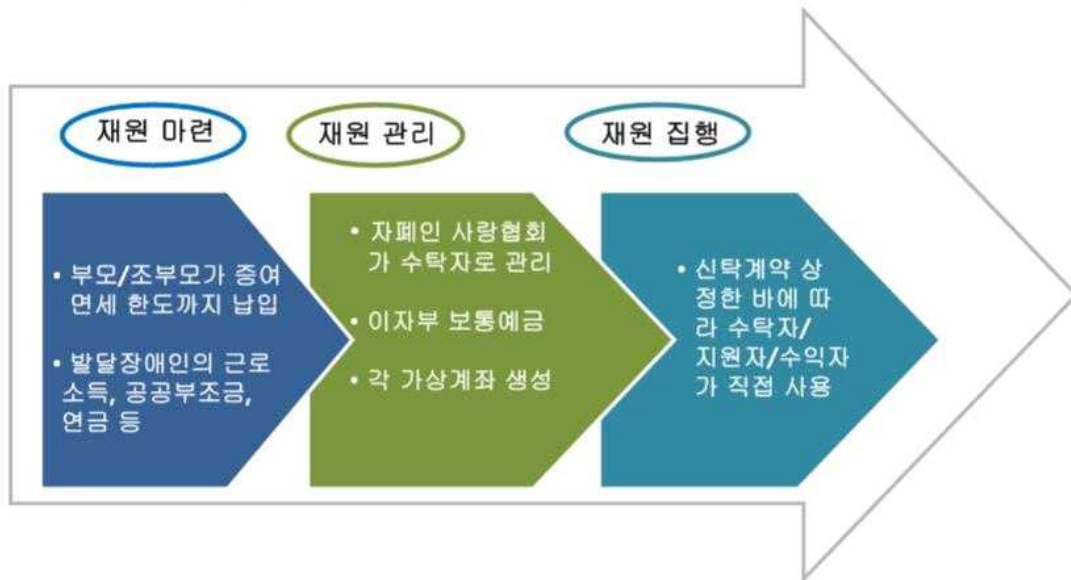
3. 후견의 종류

제 도	근거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종료
성년후견	법률	원칙적으로 없음	포괄적 대리권	• 후견원인의 소멸 • 피후견인의 사망
한정후견		후견인의 동의권 범위에서 제한	법원이 수여한 범위에서 대리 권이 존재	상동
특정후견		있음	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 여 대리권을 부여	• 후견기간의 만료 • 피후견인의 사망
임의후견	계약	있음	계약에서 정함	• 법원의 종료허가 • 해임 • 피후견인의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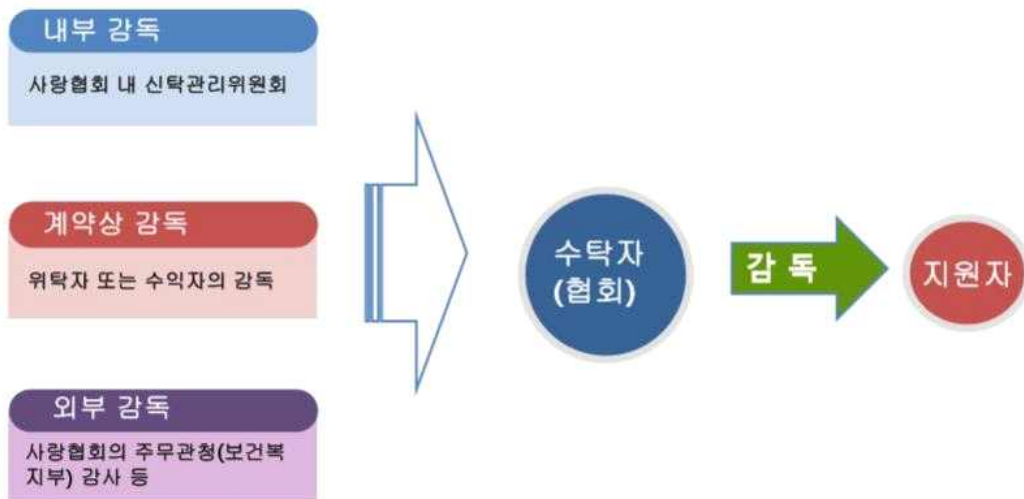
4. 발달장애인 신탁의 체계



신탁재산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신탁재산을 위한 안전장치



2016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팀 명	늘푸른동산 주간보호
일 시	2016년 2 월 18일 16:00-17:30
장 소	별관 3층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6년도 늘푸른동산 사업 소개 및 운영 방침

1. 목적

주간보호사업은 중증의 장애인들에 대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기능의 손실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부모들에게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애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1) 프로그램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7:00까지 진행(송영서비스 시간 제외)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09:00~13:00(토요공예체험) 진행

2) 세부프로그램

- 이용인 정규프로그램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09:30	내관지도				
09:30-10:00	조회 및 프로그램 나눔				
10:00-10:50	생활미용관리	*아쿠아피트니스 B팀	*아쿠아피트니스 A팀	음악활동	/환경미화 /인권교육
10:50-11:30	성교육			*컴퓨터교육	/도예체험
11:30-13:00	점심 식사 및 양치지도				
13:00-14:00	*노래배우기	*에어로빅	인지학습	*요가	*요가
14:00-15:00	보드게임	예절교육	통합활동	종이접기	*방송댄스
15:00-15:30	/요리활동	클럽활동		간식시간	간식시간
15:30-16:00	간식시간	청소시간	간식시간	청소시간	청소시간
16:00-16:40	헬스(희망자)				
16:40-17:00	종례 및 귀가 지도				

- 1) *표시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활동임
- 2) 클럽활동은 비즈공예, 냅킨아트로 이용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
- 3) 2016년 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미술/3월부터 실시),
장애인체육회지원사업(미정, 배드민턴)

- 4) 월 1회 : 지역사회시설이용 실시
- 5) 년 3회 : 각종행사(나들이, 남동송년예술제)
- 6) 년 6회 : 체지방측정(4회), 독감예방접종(1회), 건강진단(1회)
- 7) 년 4회 : 구강교육, 비만교육, 위생교육(2)
- 8) 년 2회 : 상하반기 소방교육
- 9) 주 1회 :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활동
- 10) 년 2회 : 상하반기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보호자 욕구조사
- 11) 년 2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지역축제 참여

• 이용인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 부모상담- 수시
- 부모교육- 년 4회 실시
- 부모회 모임- 년 4회 실시
- 가족여행- 10월 12-13일(1박 2일)
- 가족송년모임 실시 - 12월 중 실시되며, 가족 모두 참석하여 본 센터 사업보고 및 시상식 진행

제 6 장 부모회

제16조 (부모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 모임을 부모회라 칭한다.

제17조 (부모회 및 부모교육)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개시한 날부터 이용인의 부모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실시하는 부모모임이나 부모교육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이용료

(1) 적응기간 이용인

- 식대는 별도로 날일 구입하여 사용 1일 : 2,500원
- 적응기간에는 정규이용인의 월이용료 기준으로 날일 계산하여 납입

(2) 정규 이용인

- 이용료는 130,000원이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입금 (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세대의 경우 이용료는 50% 감면)

(3) 식대는 월 단위로 50,000원 금액을 현금납입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5일까지 입금

(4) 2016년도 월 이용료 산출근거 내역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사회 적응 훈련 활동비	아쿠아피트니스 이용료	8,600원	월4회×30,000원≒14
	방송댄스 이용료	8,500원	월4회×2,125원
	클럽활동 재료비 및 강사료	10,000원	월1회×10,000원
	종이접기 재료비	5,000원	월4회×1,250원
	농장체험 이용료	5,000원	
	통합활동비	10,000원	
	토요공예체험비	15,000원	월1회×15,000원
	지역사회시설이용비	10,000원	월1회×10,000원
	기타활동교구 교재비 (인지학습, 음악활동, 생활미용 관리 등)	11,150원	월1회×10,000원
	소계	83,250원	
행사 활동비	나들이	16,000원	1회×100,000원≒12
	가족송년모임	10,750원	1회×129,000원≒12
	소계	26,750원	
생계비	간식비	20,000원	4주×5,000원
	소계	20,000원	
	기타운영비	-	
	총계	130,000원	

4) 환불

제14조 (환불)

1. 이용인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 중단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2. 운영 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상황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을 정한다. 즉, 15일 이전 종결 시에는 이용료 및 식대는 50%를 지급하고 15일 이후 종결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이용기간 : 3년 이용 이후 재평가 통해 1년 더 연장가능

(서비스 계약서 상단에 이용기간 날짜 명시되어 있음)

3. 서비스 종결 내용

운영규정 중 제 9조 <서비스 종결>

본 주간보호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포기 -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대상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무단으로 연속 2회 이상 결석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3.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정 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이용자의 장애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무단으로 서비스에 연 5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5) 일시종결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단, 일시종결은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화재)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국한하며 1개월이 지날경우 자동종결 된다.

2016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남동발간 2016-10호

- 발행일 : 2016년 12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윤 진 현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

